

ISSN 2672-0728



加耶

가야
G A Y A

Magazine 가야 VOL. 1. 2019 가을

책읽은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VER STORY

Magazine 가야의 창간호를 장식하는 표지사진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입니다.
위 토기는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서 출토된 집모양토기로
고대 가옥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표지의 한글 및 한자 글씨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천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Magazine 가야 Vol. 1.
발행일 2019년 10월 11일 발행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전화 055) 211-9000 www.gaya.go.kr
총괄 박종익 기획 양숙자, 강동석, 신종우, 한우림 행정지원 강형도, 이화선
집필 조영제, 하승철, 김수환, 송원영, 이현석, 조신규, 김주란, 송영진, 김동윤, 민경선, 정인태
디자인 (주)오엔 055) 262-2116 http://oan.kr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의 협의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加耶 가야 GAYA

Magazine 가야

Contents

발간사	04
가야, 가야사 연구 _ 조영제	0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_ 하승철	12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 _ 김수환	18
내고향 가야유적	
가야문화의 발상지, 김해 금관가야의 가야유적 _ 송원영	20
백두대간을 넘은 장수가야 _ 이현석	26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최신 발굴성과로 본 아라가야의 왕릉,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 _ 조신규	32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다양한 매장방법을 보여주는 현장 _ 김주란	42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가야유물의 보고, 합천 옥전고분군 _ 송영진	50
부산 복천동고분군 발굴과 보물들 _ 김동윤	56
가야문화유적 전시 및 조사기관 소개 _ 민경선	
국립김해박물관	6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67
가야유적 연구자료 소개 _ 정인태	
가야자료총서 소개	68
기타	
가야 전시 및 행사 소개	70
가야문화권 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황	74
가야유적 집성표(시군별)	76

발간사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축을 담당하였던 고대 국가이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야사 조사와 연구, 복원이 추진되면서 가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해져, 가야 관련 학술대회와 전시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 관련 내용이 보여주듯 가야사 연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가야라는 고대국가는 삼국시대의 세 축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 성과들이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까지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아지는 일반인들의 가야 관심도에 비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을 전문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보다 빠르게, 쉽게 알려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야와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들과 가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내 고장의 가야유적과 유물, 전시·학술대회 등 최신 행사 등을 소개하는 《Magazine 가야》는 2019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봄과 가을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중덕

加耶, 加耶史 研究

조영제 |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들어가며 - 연구 성과

역사연구의 바탕은 역사기록이다. 그러나 가야는 일찍 멸망함으로 인해 자체의 역사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일본서기』, 중국사서(『남제서南齊書』, 『양직공도梁職貢圖』) 등에 단편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가야사를 복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더욱이 가야관계 기사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비판 없이 잘못 이용할 경우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인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4세기 초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일본의 고대 통일왕조였던 대화정권大和政權이 가야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것으로써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설. 달리 남조선경영론이라고도 한다.)'을 증명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1970년대 초까지 가야사 연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관우千寬宇선생님의 분석결과 『일본서기』의 가야(임나任那)관계 기사는 주어가 왜가 아니라 백제(때로는 신라)로 바뀌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왜가 낙동강 중·하류역의 대구, 창녕, 김해 등 소위 임나칠국을 평정하고, 신라를 공격했다.」(전략前略) 구집우탁순俱集于卓淳 격신라이파지擊新羅而破之 인이평정비자발因以平定比自狽·남가라南加羅·탁국啄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칠국七國(하략下略)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49년, 369년의 기사는 왜가 아니라 당시 한강유역에 있었던 백제가 경상도 일대에 들어와 활약을 한 사실을 적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천관우선생님의 지적이 있고나서부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일본서기』 가야 관계 기사에 접근함으로써 가야사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역사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의 역사를 찾는 또 하나의 학문이 고고학이다.

가야고고학은 일찍이 일제 강점기에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는 물적인 자료, 즉 가야지역의 지배자들은 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거나 친일親日가야인들일 것이며, 그들의 무덤에는 왜계의 유물들이 대거 들어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큰 봉분을 가진 가야고분들이 참혹하게 파헤쳐지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조사의 목

적이 가야사 복원 또는 가야문화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밝혀야 할 가야사를 영원히 찾기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해방 이후 한동안 정국의 혼란 속에서 유적조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가 점차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야고분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학에 관계연구자들이 증가하면서 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와 고고학 양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성과를 거둬와 동시에 또한 많은 과제도 남겨놓고 있다.

역사연구에서 거둔 성과로서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야는 6가야다(금관가야金官加耶, 대가야大加耶, 소가야小加耶, 비화가야非火加耶, 성산가야星山加耶, 고령가야古寧加耶)'라는 것에서 가야는 6가야가 아니라 2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 소개한 『일본서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6가야 이외에도 다라국多羅國이나 탁국啄國 등 전혀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가야가 존재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의 포상팔국浦上八國(현재 골포국骨浦國, 칠포국漆浦國, 보라국保羅國, 고자국古自國, 사물국史勿國 등 5개의 가야국명이 남아있다) 전쟁기사를 보면 가야소국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

또한 가야의 전신은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 東夷傳에 언급되어 있는 변한弁韓 12국이었으며, 이들이 성장하여 가야의 여러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가야가 하나의 단일연맹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지역연맹체가 존재하였으며, 오랫동안 존속했던 가야는 전·후기로 나누어지고, 전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경남 서남부지역의 소가야(또는 포상팔국연맹체浦上八國聯盟體) 등이 가야의 대표세력이었다.



이러한 가야 소국들은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서진해 오는 신라에 의해 각개격파당하고 562년을 전후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소국들이 도달한 사회가 ‘복합군장사회複合君長社會’ 또는 ‘초기국가初期國家’ 단계였다는 것 등이다.

한편 고고학에서는 영남 각지의 수많은 유적, 그 중에서도 고분들을 발굴조사하고, 그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분석하여 가야사 복원의 실마리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무덤의 형태가 목곽묘木槨墓→석곽묘石槨墓→석실묘石室墓의 순서로 바뀌어왔으며, 석곽묘가 (반)지상화하면서 거대한 봉토를 가진 고총고분古冢古墳이 만들어졌다.
- ② 가야의 전신인 변한소국을 밝히기 위한 고고자료는 와질토기瓦質土器문화 단계의 유구와 유물이다.
- ③ 4세기 말까지의 가야지역에는 외절구연外切口緣 고배와 무과수無把手 노형기대로 대표되는 김해·부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형태가 비슷한 토기들, 이른바 ‘고식도질토기古式陶質土器’들이 만들어졌다.
- ④ 5세기 중엽 경이 되면 고령식, 함안식 토기와 같이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적인 토기들이 등장하며, 이는 그 지역에 존재했던 가야소국의 실체를 알려주는 고고자료이다.
- ⑤ 5세기 후반 이후 고령식 토기의 분포는 경상도의 경계를 넘어 호남의 동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대가야가 성장하여 이 일대에게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대가야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중국사서인 『남제서』에 유일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염형火焰形 투창고배透窓高杯와 같은 함안식 토기의 분포는 함안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극히 한정된 분포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라가야의 자기완결적인 역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남부 경남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수평구연水平口緣의 호壺와 발형기대鉢形器臺는 소가야를 대표하는

토기인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가야는 고성지역에 있었던 가야소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몇 개의 소국들을 아우르는 명칭으로서 달리 포상팔국연맹체라고도 할 수 있다.

- ⑥ 갑옷과 투구, 마구들은 가야 지배층들의 전유물이며, 이러한 유물은 고구려,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의 연燕나라에 그 원류가 있었다.
- ⑦ 5세기 이후 부장되기 시작하는 금이나 은, 금동제의 귀걸이, 관모冠帽, 장식대도裝飾大刀, 장식마구 등의 유물은 고도의 기술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유물이며, 이러한 자료는 당시의 신라나 백제유물에 견주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제품이다.
- ⑧ 6세기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신라계 문물은 낙동강을 넘어 서진西進해 오는 신라의 가야정복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며,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백제계의 석실과 금속유물은 웅진시대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알려주는 고고자료들이다.
- ⑨ 가야, 특히 김해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의 문물(토기와 갑주甲冑, 마구馬具)은 일본열도에 전달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중기 고분시대(토사기土師器를 대신하여 수혜기須惠器라는 단단한 토기를 생산하고 갑옷과 투구, 마구가 함께 사용되는 이른바 기승용騎乘用 갑주문화甲冑文化가 보편화되는 시기)를 여는 등 일본 고대사회 발전에 엄청난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 ⑩ 김해, 고성, 의령, 산청 등지에서 확인되는 신라계, 영산강계, 왜계의 유구와 유물은 가야인들이 남해안을 이용하여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며, 특히 김해의 금관가야는 일찍부터 강대한 해상왕국海上王國으로 동아시아 고대사회 안에서 자리매김하였다.



가야사 연구의 과제

이처럼 역사학과 고고학계가 가야사 연구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문헌사 연구자와 고고학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나누면서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헌사학자는 문헌사학자대로, 고고학자는 고고학자대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뿐 상대방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야사를 기형적으로 만들 뿐이다.

역사복원은 문헌사학자만이 할 수 있다는 편협된 생각과 얼마 안되는 사료에 근거해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는 방법을 버리고 새롭게 발견된 고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복원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변한12국이나 가야소국의 위치비정을 후기 와질토기 유적이나 고총고분으로 이루어진 유적을 검토하여 시도해 본다거나, 또는 고령에 있었던 변진弁辰 반로국半路國(반파국半婆國)에서 가라국加羅國으로, 다시 이 가라국加羅國이 발전하여 대가야국大加耶國으로 성장했다는 도식적인 주장과 이를 함안지역에 적용하여 변진弁辰 안야국安邪國에서 안라국安羅國, 나아가 아라가야阿羅加耶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파국半婆國이나 안야국安邪國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후기 와질토기 유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령지역에서는 반운리에서 그 흔적만 확인될 뿐 정치체를 알려주는 대규모 유적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으며, 함안지역에는 전기 와질토기 유적이 상당히 발견되었으나 이들이 후기 와질토기 문화로 발전한 흔적은 없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반파국半婆國과 안야국安邪國의 존재를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포상팔국 전쟁의 경우 포상팔국이 만약 함안의 안라국을 공격했다면 그 시기에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실체가 먼저 존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3세기 초 공격자였던 고자국古自國이나 사물국史勿國이 있었던 오늘날의 고성과 사천지역에 이러한 정치체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후기 와질토기 유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대상이 되었던 안라국이 있었던 함안지역에 어떤 후기 와질토기 유적이 있는지에 대해 고고자료로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고성과 사천지역, 그리고 함안의 말미산고분군에는 전기 와질토기에 속하는 유구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으나 유구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양과 질에서 어떤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만한 것은 없다. 더구나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할 후기 와질토기에 해당되는 유구는 발견된 바 없다.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포상팔국 전쟁을 담당했던 가야소국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체의 내부구조와 그들의 영역, 그리고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지역의 정치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고학계든 역사학계든 역사복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신뢰할 수 있는 연대론의 확립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고학계에서는 같은 유구나 유물을 두고 작게는 50년, 많게는 100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학계의 경우 특정 사건, 이를테면 『삼국사기』 내해니사금奈解尼師今 14년조(209)에 언급된 ‘포상팔국전쟁浦上八國戰爭’의 경우 이것이 일어난 연대를 3세기 전반대로 보는 사람으로부터 3세기 후반, 3세기 말~4세기 초, 4세기 전반, 4세기 중·후반, 6세기 중엽으로 보는 연구자까지 최대 300년의 연대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올바른 가야사 복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가야의 전신前身인 변한소국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와질토기문화 단계의 유적과 유물을 찾고, 이러한 자료를 문헌사학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소국들의 위치비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없이 막연히 낙동강 이서의 경상도 서부지역에 변한소국들이 있다고 지도에 표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김해를 비롯하여 밀양 등 동부지역에는 많은 와질토기 유적들이 분포하며, 이를 토대로 변한소국의 존재를 파악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부경남 지역에는 남해안 일대와 진주, 합천 등지를 중심으로 전기 와질토기 문화단계의 유적들이 분포하나 이들은 후기 와질토기 문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발전하더라도 동부 영남지



역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즉 현재까지 확인된 서부경남 지역의 후기 와질토기 단계의 유구와 유물은 어떤 변한소국이 있었음을 알려 줄 정도로 규모가 크지도 않고 유물도 빈약하다.

그런가 하면 함양이나 산청, 하동, 의령, 사천과 고성 of 내륙지역에서는 아예 와질토기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남지역 진·변한 정치체의 존재를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와질토기, 그 중에서도 후기 와질토기 유적이라면 도대체 서부경남 어디에 변한소국이 존재했을까? 커다란 숙제를 고고학계에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6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여개의 소국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나라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으며, 이것을 밝히기 위한 고고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심여기가 훨씬 넘는 고창고분이 축조된 대규모 유적을 근거로 거기에 가야소국이 있었다고 할 경우 서부경남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유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함안의 말이산고분군을 필두로 고성의 송학동고분군, 합천의 옥전과 삼가고분군, 산청의 중촌리고분군 등은 아라가야나 소가야, 다라국, 그리고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야소국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적들이다.

그러나 10기 미만의 중형 봉토분, 이를 테면 의령 경산리고분군이나 합천의 영창리고분군처럼 수기의 고분으로 구성된 유적들의 성격을 무엇으로 파악해야 하느냐? 이런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야소국은 없었을까? 하는데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까지 '변한에서 가야로 바뀌었다.' 그리고 '6가야가 가야의 전부가 아니라 훨씬 많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이것을 실증적으로 밝힐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고대 역사 지도에 변한이나 가야소국을 서부경남 곳곳에 도식적으로 배치하여 아무런 근거없는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에 의한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가야인들이 가졌던 수준 높은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유물의 자연과학적인 분석, 철기의 성분분석이나 유리구슬의 미량원소 분석, 토기의 태토분석, 목제유물의 수중분석 등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분석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다수 발굴담당자들은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포기해 버린다. 이 결과 원료의 산지추정産地推定이라던지 유물에 투영된 가야인들의 기술을 밝힐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고분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단 무덤인 소형유구들로 이루어진 유적과 당시인들의 생활모습을 밝히기 위한 생활유적, 생산유적 또한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유적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겨우 아라가야의 이른 시기 토기생산시설인 장명과 우거리 토기가마 조사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금관가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야소국은 활발한 철 생산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가야시대의 제철로製鐵爐를 비롯한 철기생산 유적은 조사된 바 없다. 그냥 막연히 합천군 야로면이 이름 그대로 철생산과 관계가 있으며, 고령의 대가야가 이 지역의 철 생산을 장악했기 때문에 후기가야의 대표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많은 철 생산관계 자료는 야로의 철장鐵場이 조선시대 3대 철장의 하나였음을 알려줄 뿐 이 유적들이 가야시대의 제철유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유적과 유물은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복원시킬 수 없고, 그 결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역사를 되찾을 수 없다는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가야시대의 모든 유적이 이런 저런 이유로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파헤쳐진 고분군 자료는 영남의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있었던 유구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고고자료, 예를 들면 권위의 상징인 대도大刀의 경우 피장자의 머리 쪽에서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허리 쪽에 놓여 있었는지 또는 발치 쪽에 다른 여러 유물들과 뒤섞여서 발견되었는지에 따라서 대도大刀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하나의 자료라도 발견위치에 따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고고자료는 반드시 매장 of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 고고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굴되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유적은 발굴조사 되기 전까지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가며

우리 국민의 가야사에 대한 인식은 극히 단편적이면서 부정확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야는 6개의 나라(6가야)로 구성되었으며, 그 시조는 김수로왕金首露王이고 부인은 허황옥許黃玉이었다는 정도이며, 이 가야가 신라보다 이른 시기에 있었는지 또는 늦은 시기의 역사였는지 아니면 같은 시기였는지조차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학교의 역사교육에서 가야사를 지극히 소홀하게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한국사 전체가 단시간에 암기하여 입시 성적 획득의 도구로만 인식되는 일선교육에서의 서글픈 상황 때문에 국·영·수처럼 장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극히 단편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고등학교 국사책을 보면 '가야는 변한소국에서 발전하였으며, 전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가야는 신라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국의 성립」과 「삼국의 정치적 발전」 항목에서 모두 합해 1쪽 정도의 분량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책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들은 책에 언급되지 않은 함안의 아라가야나 고성의 소가야 등 김해·고령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던 가야소국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가야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일찍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다. 그나마 가야관계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일본의 고대 역사책인 『일본서기』는 비판 없이 이용할 경우 한일 역사왜곡의 주범인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실학자나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게조차 외면당했다. 이처럼 역사기록이 부족한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는 비용도 많이 들 뿐

만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더욱이 가야는 신라나 백제처럼 통일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20여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나라는 제각기 중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나 공주·부여처럼 한곳의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지역, 예를 들면 금관가야의 고지인 김해나 대가야의 고령, 아라가야의 함안, 소가야의 고성 등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었다. 그 결과 발굴조사도 이들 지역에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우연히 발견된 유적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었다.

신라·백제와 동시기에 존재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역사와 문화를 가졌던 가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국고대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고대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 이점에서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가야사에 대한 관심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나아가 이 기회에 가야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역사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

World Heritage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가야와 가야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산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의 곁을 지키며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온 가야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이 유감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한 축을 형성했던
가야인들의 삶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야문명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금 되살리는 대역사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2012년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현황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2019. 6.30~7.10)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종묘(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을 시작으로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고창·화순·강화고인돌(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까지 14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9년 7월까지 전 세계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총 1,121건이다.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관광산업, 국토 및 도시 관리 정책과 연계되면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적과 건축물, 기념물 등에 한정되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연속유산(series heritage), 초국경유산(trans-national heritage) 등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에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제시된 10개 기준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유산에 연계된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정성’이란 특정유산의 형태와 특성이 원래 만들어질 당시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산의 가치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되거나 표현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완전성’은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

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본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개발 또는 방만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보호관리 체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는 유산의 가치는 물론 등재 당시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수준이 등재결정 이후에도 유지 또는 향상되도록 담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률이나 제도 혹은 전통적 방법에 의한 유산의 장기적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의 개발 등으로부터 유산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보호지역이 설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완충지역(buffer zone)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신청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해당 유산의 주변지대를 말하며 여기에는 신청 유산을 둘러싼 인접환경과 중요 경치는 물론 신청 유산 및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버팀목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지대 및 속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 1의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제시된 등재기준 I~VI은 문화유산, VII~X은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복합유산은 양쪽 유산 모두에 각 1개 이상의 등재기준을 충족해야 등재될 수 있다.

표 1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구분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비적 예술품,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모든 세계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형태와 디자인, 재질, 기법, 의식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이 반드시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적 또는 자연지리학적 지형 등 지구사의 주요단계를 잘 대변하는 우수한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중요한 진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현황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2012년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2013년 12월에는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으로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다. 이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5월에는 기존 3곳의 고분군에 고성 송학동고분군·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합천 옥전고분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4곳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후 2018년 8월에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가야고분군이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조건부 가결되었고, 2019년 7월에는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년 7월 심의에서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에 대한 보완이 요청됨에 따라 2020년 7월로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이 연기되었다.

따라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목표가 수정되게 되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는 등재신청서를 수정하여 2020년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1년 1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1년 8~9월 현지실사를 거쳐 2022년 7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소멸된 가야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등재기준Ⅲ)이며, 세계의 민족지 위에서 유일하게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체라는 점이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약 600년 간 존속했던 고대 왕국이다. 가야는 여러 정치세력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연맹 또는 연합체를 형성하였다.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7개의 가야고분군은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축조된 가야 각국의 왕과 지배층 묘역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구야국),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반파국),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안야국), 합천 옥전고분군은 다라국,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고자국),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화가야(비사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기문국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묘역이다.

가야는 고분군 축조와 장례풍습의 공유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집단의 결집을 강화하였다. 가야의 고분군에는 수백 또는 수천기의 고분이 군집하고, 다양한 계층의 고분이 포함되어 있다. 고분의 규모와 배치방식, 부장유물에는 매장된 개인의 사회적 신분질서가 반영된다. 고분의 외형은 원형으로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구조는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로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동아시아 기술, 사상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야의 문화적 특성이 묘제에 반영된 결과이며 사회의 구조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가야 사람들은 고분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토기, 농공구, 무기, 장신구 등 막대한 유물을 부장하였다. 고분에 부장된 유물은 가야인의 의식주, 생활풍속과 신앙, 매장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고분에서 출토된 교역품은 가야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중국 대륙에서 전달된 새로운 기술과 문화는 고분의 축조와 부장유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이는 해양교류를 통해 일본열도로 퍼져나갔다. 가야는 당시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문화권 형성의 중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가야 각국의 고분구조와 부장유물은 가야문명의 특징이며, 가야 각국의 정치, 문화적 특성과 계층적 권력구조는 왕과 지배층 고분군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존·활용할 수 있는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유산의 등재는 여러 측면에서 가야고분군의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개별 국

가의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위해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해당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유산 보존 방식을 벗어나서 인류 공동의 유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관리되어야 할 유산 목록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존·활용할 수 있는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가야와 가야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유산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의 곁을 지키며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온 가야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이 유감없이 펼쳐지고 있다. 1~6세기 당당하게 한반도의 한 축을 형성했던 가야인들의 삶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야문명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금 되살리는 대역사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은 1500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가야의 전성기이다.

그림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유산
7개 가야고분군 위치도



그림 2.
7개 가야고분군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

경상남도 가야사

기원을 전후한 변한(弁韓)의 작은 나라들에서 시작하여 삼국과堂堂히 경쟁하다 500년 역사를 새겨놓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 왕국, 가야(加耶). 14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고대 왕국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가야의 옛 땅, 경남에서 한창이다.

그동안 가야의 역사는 국민들에게 망각(忘却) 그 자체였다. 잘 알려진 대로 문헌기록의 부족도 이 유 중 하나겠지만 가야유적에 대한 충분한 학술조사와 심화연구가 부족했던 탓도 적지 않다.

경상남도¹⁾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경남의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각종 가야사 사업을 발굴하였고, 그 해 12월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학술적 검증을 통해 가야의 실체를 복원, 정립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5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08개 사업(단기61, 중기26, 장기21)으로 구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 간 진행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민(民)·관(官)·학(學)이 함께 하는 ‘가야사 대(大) 프로젝트’이다.

경상남도의 가야사 사업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소재 가야유적에 대한 지표, 발굴 등 학술조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국정과제 전 10여건에 불과하던 가야유적 학술조사가 지난해 3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대폭 증가하여 60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등 지금껏 주요 가야문화권으로 주목받아 온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아 왔던 경남의 서부 내륙지역이나 남해안 일원을 포함한 18개 시·군 전부가 참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경상남도에서는 가야사 연구복원의 일환으로 주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야유적 사적승격 지원사업」이다. 이는 도지정 또는 비지정 가야유적 중 국가 사적이 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대상으로 학술조사(지표,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 신청보고서 작성 등 사적으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각종 용역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김해 원지리고분군(도기념물 제290호)과 함안 남문외고분군(도기념물 제226호), 창녕 영산고분군(도기념물 제168호), 합천 삼가고분군(도기념물 제8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삼가고분군은 올해 6월 사적 신청 후 자료 보완 중에 있으며, 남문외고분군은 오는 12월경 사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해 학술조사와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가야유적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가야유적 중에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비지정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삼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가야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흙 속의 진주’를 찾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올해는 진주의 대표적인 가야고분군으로 일제강점기 도굴 같은 발굴이 시도된 수정봉·옥봉고분군을 비롯하여 통영의 유일한 가야시대 봉토분들이 분포한 팔천곡고분군, 거제 방하리고분군과 남산패총, 함안 수곡고분군, 합천의 성곽유적과 소오리고분군 등 모두 7개의 비지정 가야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야유적 미발간보고서 간행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발굴보고서 제출의무 조항이 신설되는 2005년 1월 이전 대학박물관 등에 의해 발굴된 가야유적 중에는 당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수장고에 사장되어 있는 자료가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가야사 규명에 중요한 유적들로 보고서 발간 지원을 통해 해당 유적의 문화재 지정 및 자료를 양성화하여 학술연구와 전시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해양동리고분군(경제지점, 1995년 발굴), 두곡유적(1997~98년 발굴), 창녕 계성고분군(북5호분, 1967년 발굴)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발간 작업 중에 있다.

2019년 경남의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중 최고의 성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유적 2개소의 국가사적 지정이다. 창녕 계성고분군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영산고분군과 함께 비화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261기의 봉토분을 통해 창

녕 비화가야의 성립과 발전, 쇠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사적 제547호로 지정되었다. 또 함안 가야리유적은 아라가야 왕궁터로 전해져 오다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요 시설(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토성 일부와 군사적 성격의 수혈 건물지군이 확인되어, 사적 지정 예고된 상태이다. 이 두 유적들은 가야사 연구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중요 유적들이며, 이번의 사적 지정을 통해 향후 장기적인 발굴조사와 안정적인 보존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추진하면서, 학술조사뿐만 아니라 가야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고, 문화유산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1년 간 「가야문화권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경남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에서 공동수행 중에 있다. 이는 경남을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에 분포한 가야문화권의 가야유산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문화 환경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가야사를 더 이상 책 속의 가야, 땅 속의 가야가 아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어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야를 더 이상 전설의 왕국, 신비의 왕국이 아닌 한반도에 실존했던 당당한 고대 국가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1)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1월 국내 최초로 가야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과 단위로 신설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가야문화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지난 1월 도의원단으로 구성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 고향 가야유적

1

가야문화의 발상지, 김해 금관가야

구지봉과 왕릉·왕비릉

김해는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 금관가야의 고도로 널리 알려졌다. 다른 가야 지역과 비교해 시내 중심가에 많은 가야 유적이 밀집해 있는데, 그 종류도 탄강지와 왕릉·왕비릉, 고분군, 생활유적, 산성 등으로 다양하다.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해반천을 따라 동쪽에만 가야 유적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가야시기에는 서쪽이 고김해만古金海灣이라고 불리는 바다였기 때문이다. 동쪽의 진산에 위치한 분산성을 필두로 제일 북쪽에는 구지봉과 수로왕비릉, 그 남쪽에 대성동고분군과 수로왕릉, 더 남쪽에 봉황동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1.5k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밀집하고 있다.

김해에는 해반천 주변 외에도 100여개소의 다양한 가야유적이 밀집하고 있다. 미 발굴된 유적도 많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발굴 후 사라진 유적 또한 적지 않다. 지면 관계상 가야시기 이후 최근까지 김해의 영역이었던 현재 부산시 강서구 일원은 제외하고 가야유적 중 보존 가치가 높고 성격이 어느 정도 구명된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구지봉은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탄강하여 대가락국을 세운 곳으로 고김해만古金海灣을 향해 돌출한 ‘곶’의 지형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붙은 이름이다. 구릉 정상부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1기가 있는데, 상석에는 ‘구지봉석龜旨峯石’이라는 명문이 있다.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썼다고 전한다. 구릉의 동쪽 기슭에는 수로왕의 왕후인 아유타국 출신 공주 허황옥의 능이 있으며, 왕비가 풍랑을 막기 위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과사석탑도 남아 있다.

구지봉 구릉은 아직까지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 청동기시대의 환호가 발굴되었고 구릉 위에도 무문토기 편이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수로왕 탄강 이전의 중심 취락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청동기시대 지석묘는 국내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구지봉 북쪽 구산동지석묘를 비롯하여 애구지구릉(대성동고분군), 회현리패총, 내동지석묘 등 해반천을 따라 동서로 분포하고 있는데, 가야유적이 해반천 동쪽에만 분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중심 취락의 이동과 해양 및 해변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수로왕릉-왕비릉도

수로왕릉과 고분군

수로왕릉은 199년 수로왕 사후 조성된 무덤으로 금관가야 지배계층의 무덤이 밀집한 대성동고분군의 동쪽 평지에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수로왕릉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수로왕릉과 인접한 대성동고분군의 남쪽 수릉원 평지에도 1~2세기대 목관묘가 다수 분포한다는 발굴결과가 나와 이러한 견해를 많이 불식시키고 있다.

수로왕릉과 구지봉 사이 해반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단독구릉에 위치한 대성동고분군은 명실공히 1~5세기 가야 전기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6세기대의 고분도 있으나 이 시기는 지배계층의 묘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시기다.

금관가야 고분군 간의 위계를 보면 대성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부에 양동리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 있으며, 그 밑에 다시 칠산동고분군 등 소지역 지배층 무덤이 있다. 최하부에는 예안리고분군을 비롯한 피지배층의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총 4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계층성은 무덤의 규모만이 아니라 출토된 유물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2. 현재의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은 구릉의 북쪽 낮은 곳에서 남쪽의 높은 지점으로 대개 시기순에 따라 무덤이 조성되었다. 능선상에는 최고 지배계층이, 사면에는 그 보다 낮은 신분의 지배계층 무덤이 조성되었고 평지에는 더 작은 규모의 무덤이 위치하였다. 묘제墓制는 대체적으로 가야시기 이전의 지석묘로 시작하여 1~2세기대의 목관묘→ 3~4세기대의 단독목곽묘→ 4~5세기대의 주부곽식목곽묘→ 4세기후반대~5세기대석곽묘→ 6세기대 석실묘로 변화한다. 석곽묘는 4세기후반 소형 무덤에 처음 나타나 5세기후반에는 대형묘에도 사용되었는데, 다른 가야 지역의 무덤과는 달리 목곽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지하 수혈식 구조인 것인 특징이다.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 등 지배계층의 무덤은 6세기 이후 인근의 묘역으로 이동하는데 대성동 집단은 대성동고분군의 동북쪽 구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하고, 양동리고분군 집단도 6세기대 이후에는 원지리고분군으로 이동하는데 비해 피지배층인 예안리집단은 그 자리에서 연속하여 무덤 조성이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각 고분군 집단간에는 무덤의 규모나 순장자의 숫자는 물론 출토유물도 차이가 난다. 대성동에서는 중국 중원계와 북방계 유물을 비롯하여 왜계倭係(일본계)유물은 물론 로만글라스가 출토될 정도로 교역 품이 많다. 양동리에서는 대성동과 비슷한 외래계 유물이 일부 출토되나 그 수량과 질적인 차이가 크다. 칠산동이나 예안리에서는 외래계 유물 등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부장된 토기의 질도 외형이나 문양, 소성 정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예안리고분군은 피지배계층의 집단 묘역임에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예안리고분군은 김해 대동 예안리 장시마을에 형성된 해안사구에 조성된 4~7세기대 무덤들로 지형의 특성상 다량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목곽묘와 석곽묘, 석실묘가 동일한 지역에서 중복 조성되어 가야 묘제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수 백구에 달하는 인골이 출토된 것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도시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소규모 고분군이 많이 있는데 주로 4~5세기대의 것이다.



3. 대성동고분군 제91호분 노출 모습

**봉황동유적
(토성과 왕궁, 패총, 포구)과
유하리유적**

봉황동유적은 당초 회현리패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봉황동유적은 단순히 가야시기의 패총만 있는 유적이 아니라 토성과 왕궁, 포구와 주거, 고상가옥 등 복합적인 생활유적이므로 명칭과 유적 범위가 변경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봉황대는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 구릉과 남북으로 연결하였는데, 서쪽 고김해만이 있던 곳은 구릉이 가파르고 동쪽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수로왕은 43년 신담평新沔坪(지금의 봉황대 구릉을 둘러싼 지역)에 1,500보 둘레의 성을 쌓고 내부에 궁궐과 전당, 여러 관청과 무기고, 창고 등을 지었다고 한다.

봉황동유적 서쪽 해변전에 면한 지역은 거의 평지인데 가야 시기는 바닷가였다. 이 지역 발굴결과 해변 저습지를 매립한 곳에 여러 겹의 판자를 겹친 초판礎板을 깔고 기둥을 세운 고상가옥이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구릉의 남쪽에서는 4세기대 선박 부재와 노槽, 닻돌 등이 발굴되었다. 토성은 추정 길이 1.1km, 하단 폭 22m, 상단 폭 16.5m, 잔존 높이 2.4m에 달하는 대규모로 테피식 산성처럼 봉황대구릉을 둘러싼 형태로 확인되었다. 패총은 구릉의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 유명한 회현리패총은 봉황대구릉에서 동쪽으로 돌출된 낮은 가지 구릉에 있다. 패총을 포함한 봉황동유적은 1907년 최초 발굴이후 수 십 차례 발굴되었고 지금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정왕궁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동리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주거 영역인 유하리유적도 양동리고분군의 남쪽에 연결한 단독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구릉의 양 옆으로 유하천이 흐르고 남쪽 정면에는 바다가 위치하여 삼면이 자연스러운 방어가 이루어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봉황동유적과 비슷한 입지조건이다. 구릉 곳곳에 패총이 있는 것도 동일하지만 토성과 포구 흔적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구릉 정상부 근처에서 3세기대로 추정되는 환호가 최근 확인되었고, 추가로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포구 또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구릉위에서는 동북쪽으로 봉황동유적을 비롯한 분산성 등을 직접 조망할 수 있으며, 남서쪽 약 4.5km 지점에서는 4세기대의 포구와 도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김해 지역 일대 전체가 해상을 이용한 포구와 이들을 연결하는 감시망과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봉황동 유적 고상가옥 (초판)

5. 봉황동 유적 고상가옥 (초석)

6. 봉황 토성

산성, 제철유적, 경작지 등

김해지역에서는 봉황동유적을 둘러싼 평지에 조성한 토성이 4~5세기대로 밝혀진 반면 아직 가야시기로 확정할 만한 산성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가야시기로 거론되는 분산성과 양동산성, 마현산성 등이 있으나, 6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하는 자료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렇지만 김해지역 산성의 초축 시기가 소급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분산성은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과 세트를 이루며, 양동산성은 양동리고분군, 유하리유적과 세트를 이룬다. 중심 고분군과 생활유적, 관방유적이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은 고령과 함안 등 다른 가야지역과 동일하다. 마현산성 인근에 위치한 나전리보루의 경우 6세기 전반대로 추정되므로 다른 산성에서도 더 이른 시기의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은 높다. 분산성과 양동산성이 위치한 산 정상부에 후기무문토기 시기의 고지성집락高地性集落이 위치한 것도 이곳이 가야 이전부터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널리 활용된 근거로 제시된다. 향후 산성 내부에 있는 집수지集水池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산성의 정확한 초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설 수 있게 한 제철유적은 진영 하계리, 여래리유적에서 발굴되었으며, 철광석은 대동 광산에서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미 발굴된 상태이다. 토기가마는 진례면에서 몇 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함안이나 창녕처럼 대규모로 조성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작지는 봉황동유적 서쪽 평지와 구지봉 남쪽 평지에서 일부 발굴되었으나 지형 조건상 광범위하게 조성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지형 조건과 유적의 입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경작지를 기반한 생활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생활 중심지는 교역을 위해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맺음말

김해지역 금관가야 유적의 특징은 바다와 낙동강, 도로를 통해 이루어진 활발한 물자와 인적 교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고분군과 생활유적, 방어유적이 지근에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분군 위주인 다른 가야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 있고, 또 이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장점이나 발굴 이후 보존된 것이 드물고 남아 있는 유적 또한 도시화로 인해 훼손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소위 가야불교로 전해지는 사찰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은 여럿 있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유적의 원상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금관가야 권역내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에서 꾸준한 발굴조사의 성과에 힘입어 점차 이들 가야유적에 대한 복원 연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참고문헌

김해시, 1998, 『김해의 고분문화』, 김해시.
김해시, 2018, 『우리고장의 문화재』, 김해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발굴조사자료편 I』, 『가야자료총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내 고향 가야유적

2

백두대간을 넘은 장수가야¹⁾

장수군은 전라북도의 동부산악지역에 자리하며 행정구역상 1읍 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2만3천의 중소도시이다. 전체면적의 75%가 임야이며 군의 외곽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고,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은 533㎢이며 동서간 20㎢, 남북간 44㎢에 이른다.²⁾

호남의 지붕이라 알려진 진안고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안고원에는 장수군과 더불어 진안군, 무주군이 속해 있다. 3개 군의 앞 글자를 따와 이 지역을 흔히 '무진장'이라 부르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낙후된 산골 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최근 들어 이 조용한 시골마을 장수에 “가야”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 1993년 장수 삼고리고분의 확인을 통해 장수군에 가야의 존재를 알렸고 이후 꾸준한 지표조사를 통해 크고 작은 가야 관련 유적이 300개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역사·고고학적으로 장수군은 선사시대 이래로 많은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계남면에 자리한 침곡리 구석기유적³⁾을 시작으로 천천월곡리유적의 신석기 문화의 존재, 장수군 일원에서 약 140여기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어 청동기 문화, 역사교과서에도 실린 초기철기시대 대표유적인 장수 남양리유적 등이 자리하고 있다. 문헌에는 『삼국사기』에 장수가 처음 기록되었는데 당시 장수읍은 우평현, 장계면은 백해(이)군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의 역사적 기록이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고대사회 장수지역은 지금의 무·진·장이 아닌 고대사회 한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야는 장수에 많은 흔적들을 남겼으며 특유의 화려함을 수놓았다.

우선 주목해야 할 흔적은 가야 이전 초기철기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천 남양리유적⁴⁾이다. 이 무덤에서 검은목긴항아리黑陶長頸壺, 덧띠토기粘土帶土器, 한국식구리칼細形銅劍, 칼자루 끝 장식劍把頭飾, 가는무늬거울細文鏡, 구리창銅鏃 등을 비롯하여 주



남양리 유적 출토 유물



노하리 고분 출토 소리나는 화살



남양리 유적 출토 세문경

조된 쇠도끼鑄造鐵斧, 철창鐵鉞 등 청동기와 함께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이 철제품은 중국에서 전래된 철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줄 뿐 아니라 철제품의 구성과 세부형태가 달라 자체 생산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⁵⁾ 또한 전북 동부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상위계층의 무덤이 조사된 곳으로 유일하다. 조사당시 현장을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곳에 국립으로 철기박물관이 들어서야 될 정도로 유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는 전언이다.

남양리 유적은 최근 장수군을 비롯한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150여 개소의 철 생산유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야를 무덤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 가야사 연구에 주를 이루는 것이 고분유적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수에서도 1993년 삼고리고분군을 시작으로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수 동촌리고분군⁶⁾과 백화산고분군⁷⁾, 노하리고분군 등 45개소에서 가야계 고분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중대형

무덤은 240기⁸⁾가 남아있다. 이들 무덤들에서 4세기~6세기 초까지의 연대순으로 역사를 엮을 수 있는 유물들이 확인되어 이들 가야계 무덤들의 조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무덤들에 대한 일부 발굴조사결과 전형적인 가야계 무덤양식인 수혈식 석곽묘⁹⁾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 속에서는 장수지역에 자리한 가야세력이 모방해 만든 자체제작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 양식 토기를 비롯하여 소가야 양식, 백제 양식, 신라 양식,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토기 등 당시 한강 이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들이다. 또한 다양한 철기류들이 확인되어 철의 왕국 가이라는 타이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2015년 장수 동촌리고분에서 출토된 편자¹⁰⁾는 가야문화권에서 최초로 확인된 유물로 당시 철을 이용한 기술력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1) 전북동부지역 일원에 자리한 가야를 일컫는 말로 문헌 속 옛 이름을 찾기 전까지 현재 임시로 붙인 명칭이다.

2) 장수군청 홈페이지(장수군 일반현황)

3) 전북대학교박물관, 2007, 『장수 침곡리 구석기시대 유적』, 전라북도·장수군.

4) 윤덕항, 2000, 『남양리』, 장수군·전북대학교 박물관.

5) 손명조, 2009, 『한반도 철기문화의 수용과 전개』, 『동북아 고대철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BK21사업단.

6) 2019.10.01.문화재청은 장수 동촌리고분군을 사적(제 552호)으로 지정하였다.

7) 기촌 삼봉리·정계리·호덕리고분군이 자리한 산줄기의 주산인 백화산(白華山, 해발849.5m)을 토대로 통합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다.

8)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9) 주검을 위에서 수직으로 넣도록, 옆으로 트인 창이나 임구 없이 돌로 네벽을 짰 무덤

10)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덧대는 U자형 쇠조각으로 말의 하중을 버티고 말이 달리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말발굽 보호기구로 당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3

그동안 장수지역에서 확인된 가야 무덤들에 대한 고민은 기존 영남 지방에 분포된 가야세력이 한반도의 척추인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진출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교통로이다. 당시 주요 고갯길인 육십령, 치재, 방아재 등을 토대로 호남과 영남을 잇고 서해안으로 진출하는 교통로의 발달이 가야의 진출과정에 필요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야세력이 험난한 산줄기를 넘어 장수분지에 터를 닦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늘 부족함이 있다. 참고로 남원 운봉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고분군(월산리, 두락리·유곡리)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한다.

최근 장수군에서는 가야문화의 확인을 토대로 대대적인 장수군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¹¹⁾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 앞서 전수조사의 계기를 언급하고자 한다.

2015년 계획수립 당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던 장수군은 무덤 1기의 정밀발굴조사 예산이 억대라는 소식에 발굴조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장수군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였다. 무덤 1기의 발굴조사 예산이면 장수군 전체의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하고도 남는 비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는 탁월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유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철 생산유적의 확인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장수군 일원에서 확인되는 70개소의 철 생산유적은 지표에서 밀집 파상문¹²⁾이 새겨진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가야와의 연관성을 높였다. 이를 토대로 장계면 명덕리에 자리한 대적골 철 생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장수에서 유명한 고갯길인 육십령이 있다. 육십령은 고속도로 개통 전 까지만 해도 함양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으며 예로부터 큰 길에 속했다. 육십령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이곳에 도적떼들이 많아 육십명 이상이 모여야 그 고갯길을 넘을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알

1. 1993년 삼고리 고분 출토유물

2. 삼고리 고분 출토 채색옥

3. 삼고리 고분 출토 오각형 환두대도

11)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7, 『장수군 문화유산전수조사』, 장수군.
12) 빼곡한 물결무늬로 가야토기의 특성 중 하나이다.



4



5



6

4. 삼봉리 산성 출토 가야토기편
5. 삼봉리 고분 출토 격쇠
6. 삼봉리 산성 외벽 석축

려져 있다. 철 생산유적의 확인은 이 이야기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경제의 한축인 철을 생산함으로써 철제품을 노린 도적떼의 극성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고 상당한 무게감을 자랑하는 철의 운반은 최소 60명이 모여야만 가능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외에도 장수로 집결되는 봉수가 전라북도 동부지역과 충남 금산 일원까지 106개소, 장수군 내에 21개소가 자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3개소¹³⁾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방형형태의 인위적 석축시설이 확인되었고 장수일원 무덤들에서 확인되는 가야토기 편들과 같은 종류의 토기 편들이 수습되어 가야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

다. 특히, 봉수유적은 장수지역이 얼마 남지 않은 문헌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야계 소국임을 확인시켜 줄 중요 고고학적 증거로 앞으로 발굴성고가 기대된다. 또한, 봉수유적과 인접한 산성에서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장수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야의 유적과 유물은 그동안의 가야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 가야의 세력권과 영향력이 얼마나 넓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문헌기록 어디에도 없는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은 그동안 정립된 한국 고대사의 한 획을 그을 획기적 사건이지 않나 필자는 생각한다.

13) 장수 영취산봉수, 장수 변암봉화산봉수, 삼봉리봉수 등 3개소

한편 장수가야가 대가야의 영역 내에 포함된 것이든 새로이 해석되고 있는 별도의 세력이든 이는 학술연구를 통해 곧 밝혀질 내용인 듯하다.

우선은 장수지역에 가야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실이고 이를 부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얼마 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경계의 가야라는 주제로 꽤 큰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많은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들에 걸친 학술대회에서 단연 장수가야는 화제의 대상이었다. 주요내용은 장수지역의 가야가 독립된 정치체로서의 인정이나 아니면 대가야의 지방분권세력이나 하는 쟁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인식에 장수가야가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1,500년 전 백두대간을 힘겹게 넘어 장수지역에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수놓은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가야문화권에 견줄만한 유적을 남긴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이 무엇일지. 이곳에 터를 잡았을까 그리고 그 역사성과 위상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궁금점은 이 지역에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를 항상 설레게 한다.

가야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중요한 역사로 인식되어 지역감정 해소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철저한 학술적 고증을 통해 역사성을 입증하고 이에 상생과 화합을 통한 가야사 재정립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고구려·백제·신라와 견주어도 당당하고 한축을 이루는 가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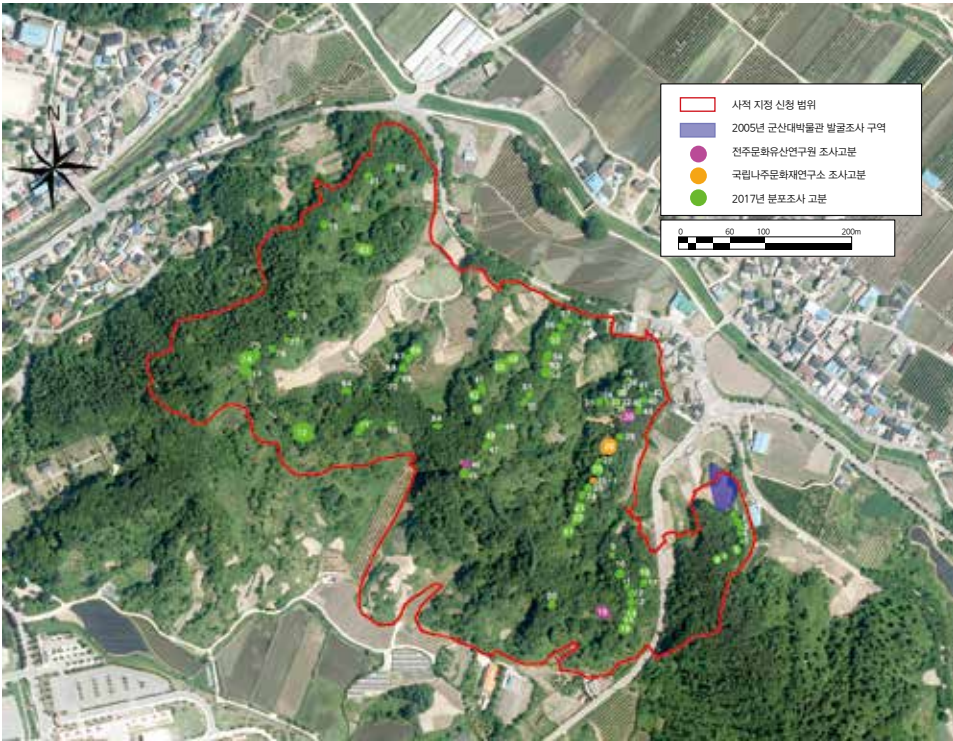
장수가야는 앞서 언급된 복잡하고 다양한 가야사를 재정립하고 삼국에 견주어 당당한 역사성을 펼치는데 있어 분명 한몫을 하리라 본다. 시작단계에 있는 장수지역 가야문화의 학술연구 및 정립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동촌리고분군 전경



내고향 가야유적(장수군)

동촌리고분군 분포도



동촌리고분군 30호분



7. 봉서리 고분 출토 금귀걸이

8. 동촌리고분군 출토 편자



7



8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①
최신
발굴성으로 본
아라가야의 왕릉,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



마주보고 있는
두 고분군

함안은 아라가야의 고도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가야읍에는 수많은 아라가야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말이산고분군末伊山古墳群은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아라가야사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게 되었다.

말이산고분군은 함안면에서부터 가야읍을 지나 북쪽으로 흐르는 광정천과 함안천 사이 남북으로 2km 가량 이어진 해발 40~70m의 자연구릉 상에 위치하고 있다. 말이산 서쪽의 광정천을 건너면 신음천이 남서쪽에서 북동쪽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신음천을 따라 형성된 1.4km 정도의 하안단구河岸段丘 위에 40 여기의 고분이 위치하는데,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로 지정된 남문외고분군南門外古墳群이다.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은 ‘八’자 형태로 700m 정도 떨어져 마주보고 있다.



말이산고분군 전경(1917)

이 두 고분군에 대한 기록은 1587년 한강寒岡 정구鄭述 선생이 남긴 『함주지咸州誌』에 나타난다. 1586년 함안군수로 부임한 한강 정구는 큰 고을인 함안에 지리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지역의 유학자들과 뜻을 모아 함안의 산천과 지세, 산물, 인물, 고적 등을 기록한 함주지를 남긴다. 『함주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찬읍지私撰邑誌로서 16세기 함안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함주지』는 가야 멸망이후 1,000년이 지난 시점에 당대에 남겨진 가야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이 중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기록은 고적조古跡條에 나타난다.

「고총古塚」

우곡리 동서쪽 언덕에 고총이 있다. 고총의 크기가 나직한 산 같으며 40 여기가 있어 세상에 전하기를 옛 왕릉이라 한다.

우곡리는 현재의 가야읍 도항리와 가야읍 신음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동쪽 언덕은 현재의 말이산고분군에 해당하며 서쪽 언덕은 남문외고분군을 의미한다. 또한 동리의 지명과 호구 등을 기록한 명



말이산고분군 전경(2018)

리조名里條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동쪽 언덕을 하리下里에 속해 있는 동말이산東末伊山, 서쪽의 언덕은 백사리白沙里에 속해 있는 서말이산西末伊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말이산이 ‘(우두)머리산’을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을 고려할 때 430여 년 전 함안사람들은 두 고분군을 같은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두 고분군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동말이산이라 표기되었던 현재의 말이산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원기념물 보존령」에 의거 고적 제118호 「도항리고분군」과 고적 제119호 「말산리고분군」으로 분리되어 지정된다. 해방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제84호 「도항리고분군」과 사적 제85호 「말산리고분군」으로 지정된다.

사적으로 지정된 양 고분군은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조사연구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 시작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고분군의 고고학적 규명과 더불어 아라가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2003년 도항리·말산리고분군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기 위한 함안박물관이 건립되었다. 2011년에는 본래의 이름인 ‘말이산’을

되찾아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통합지정 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현재 고성, 남원, 합천, 창녕의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다.

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남문외고분군은 지속적인 도굴의 위협과 개간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시달려왔다. 1980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봉토분의 수와 범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²⁾ 1990년³⁾과 1995년⁴⁾에 있었던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정밀지표조사와 1998년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의 조사⁵⁾를 통해 남문외고분군으로 명명되고 그 결과 2000년에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로 지정되었다. 2014년 남문외고분군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문외고분군 중 최대분인 1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결과 11호분은 6세기 전반에 축조된 호석과 제단을 갖춘 굴식돌방무덤으로 봉분의 규모가 직경 29.5m, 높이 5m로 현재까지 가야지역 굴식돌방무덤 중 봉분의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크다.⁶⁾ 이같은 조사성과는 함주지에 기록된 왕릉으로서의 남문외고분군 위상을 실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조사가 1기만 이루어져 전체적인 고분군의 양상을 알 수 없었으며 같은 왕릉으로 기록된 말이산고분군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1) 한강 정구, 1587, 『함주지』, 「가야국구하(伽倻國舊墟)」: 군의 관아에서 5리쯤인 성산 위에 있다. 돌레가 4383척인데 지금토 성터가 완연하다. 선조기사년(1569년)에 장범군수가 이곳에 서원을 건립하였는데 뒤에 금천으로 옮겼다.
「고국유지(古國遺址)」: 백사리 부존정의 북쪽에 옛 나라의 터가 있는데, 돌레가 1606척으로 그 축조된 빈터가 지금도 완연하나 전해오는 말에 가야국의 옛터라 이른다. 가야국구하는 현재의 성산 산성(사적 제67호)이며 고국유지는 지난해 우연히 발견되어 현재 발굴조사 중인 아라가야 왕성지이다.

2) 마산대학박물관, 1984, 「가야문화권유적 정밀지표조사 보고서-함안군-」
3)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함안아라가야의고분군 I」
4)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아라가야문화권 유적정밀지표조사 보고서」
5)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8, 「안라고분군」
6) 경남발전연구원, 2017, 「함안 남문외1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아라가야 왕릉의 특징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2017년「가야사조사연구 및 정비」의 국정과제 채택은 고분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비, 활용 등 많은 사회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운영되어 오던 고분군 관리와 정비의 패러다임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경관의 정비와 복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와 함께 발굴조사, 정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공개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경관정비와 학술적 규명을 목적으로 말이산 13호분과 말이산 45호분, 남문외고분군 6호·7호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이산 13호분

말이산 13호분은 말이산고분군 중 최대분으로 고분군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말이산고분군의 ‘주분主墳’으로도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봉분 정상부 중앙에 커다란 싱크홀(Sink Hole)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원인 규명과 향후 정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말이산 13호분은 1918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에 의해 일부가 조사되었으나 몇 장의 사진과 도면으로만 보고되어 돌방무덤인지 돌덧널무덤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사이후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는 재조사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말이산 13호분 발굴조사는 2018년 문화재청 중점공개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10일간 조사현장을 공개하였다.

말이산 13호분은 매장주체부 길이 9.1m, 너비 2.1m, 높이 1.8m의 초대형 구덩식돌덧널무덤으로 매우 정교하게 축조되어 있었다. 무덤내부는 네 벽에 붉은색 안료를 칠하여 장식하였으며, 단벽과 장벽에는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무덤에서만 확인되는 목가구시설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13매로 이루어진 덮개석 중 남쪽에서 5번째 덮개석에는 별자리가 무덤아래를 향해 새겨져 있는 것이 공개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새롭게 확인된 축조방식이었다. 말이산 13호분에서는 봉분을 고대高大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지표면의 암반을 식출하여 높은 암반대를 조성하고 그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후 다시 성토하여 봉분을 완성한 ‘고암반대’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그 동안 일부 보고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확인된 것은 말이산 13호분이 처음이다.⁷⁾ 현재 말이산 13호분은 봉분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봉분제거 후 매장주체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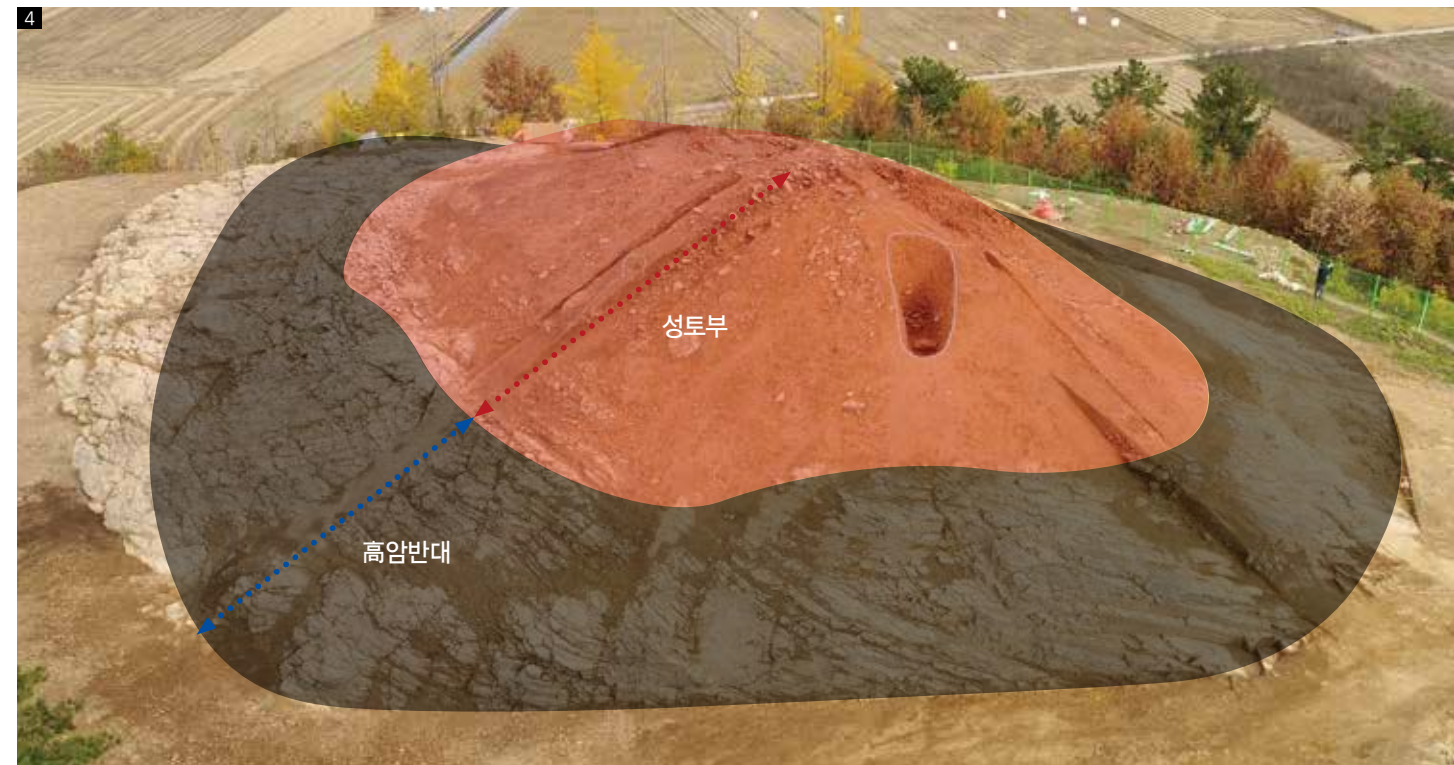
3

1. 말이산 13호분 조사전(주황색 박스)

2. 말이산13호분 내 (1918년)

3. 말이산13호분 내부 (2018년)

4. 말이산 13호분 암반대



4

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말이산 13호분 발굴조사 및 주변지역 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말이산45호분 위치

말이산 45호분

지난 7월 완료된 말이산 45호분 발굴조사는 말이산고분군 북쪽지역의 경관복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이산 45호분은 말이산고분군의 8개의 가지능선 중 북쪽 두 번째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봉분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1986년 시굴조사결과 고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표조사결과 고분일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⁸⁾ 2018년 두 번째 능선 정비사업을 위한 시굴조사⁹⁾에서 고분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특히 45호분과 주변에서는 4~5세기 조성된 대형 덧널무덤이 다수 확인되었다. 재)두류문화연구원의 조사결과¹⁰⁾ 말이산 45호분은 묘광길이 9.7m, 너비 4.53m, 매장주체부 길이 6.36m, 너비 2.49m의 초대형 덧널무덤으로 평면과 토층에서 밀봉토와 내려앉은 봉토가 확인되어 봉분을 갖춘 덧널봉토분으로 밝혀졌다. 무덤 내부는 도굴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무덤주인의 머리맡에는 아라가야 토기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화려한 토기들과 집모양, 배모양, 사슴모양 뿔잔 등 5점의 상형토기(象形土器)가 함께 출토되었다. 무덤주인의 좌우에는 투구, 갑옷, 말갑옷이 고스란히 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 발치에서는 발걸이, 안장, 금동제 장신구 등의 위세품(威勢品)이 출토되어 고분의 주인은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45호분에서도 말이산 13호분과 같은 '고암반대'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능선 정상부의 암반을 봉분형태로 삭출(削黜)하여 높이 1.8m 정도의 암반대를 조성한 후 암반대 내부를 파서 나무덧널과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나무덧개를 덮은 후 점토로 밀봉한 다음 그 위에 차례로 성토하여 조성하였다. 45호분의 축조연대가 가야고분군에서 봉분의 출현시기인 4세기 후반, 5세기 초라는 점을 볼 때 대형봉분의 출현과 함께 고암반대 축조기법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말이산 13호분과 45호분에서 확인된 '고암반대' 축조기법은 말이산고분군 내에서도 주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무덤내부 목가구(木架構) 시설과 같이 아라가야 왕릉급 무덤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8) 경남발전연구원, 2015,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9) 극동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 484-2번지 일원 시굴조사」

10) 두류문화연구원, 2019, 「함안 말이산고분군 484-2번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말이산45호분 출토 상형토기 일괄

남문외고분군

2018년 경상남도의 가야유적 사적승격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추진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남문외고분군의 성격규명을 위해 남문외고분군 가운데 위치한 6호분과 7호분, 남쪽에 위치한 15호분에 대한 발굴 및 주변 시굴조사가 계획되었다. 조사는 재)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발굴허가절차를 거쳐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지난 6월 1차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굴식돌방무덤 3기(6호, 7호, 15호분), 삼국시대 구덩식돌덧널무덤 10기 등이 확인되어 1.4km에 이르는 구릉 전체가 묘역으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중 가장 대형분인 남문의 6호분은 현실과 양수식 연도와 묘도, 호석을 갖춘 굴식돌방무덤으로 확인되었다. 현실의 길이 7.4m, 너비 2.8m, 높이 1.6m(잔존부), 연도길이 1.5m, 묘도길이 2.3m로 현재까지 확인된 가야시대 굴식돌방무덤 중 가장 크다. 봉분은 잔존 직경24.4m, 높이 4m로 남문



남문외고분군 고분분포 (2013, 경남발전연구원)

외고분군에서 3번째로 크며 봉분 하단부터 방사상의 정교한 구획성토기법이 적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보아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남문의 6호분에서도 말이산 13호분과 45호분에서 확인된 예와 같은 ‘고암반대’ 축조기법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인접한 남문의 7호분에서도 확인되어 ‘고암반대’ 축조기법이 말이산 45호분(4C 후반~5C 전반)에서부터 말이산 13호분(5C 중반~5C 후반)을 거쳐 남문의 6호분(6C 전반)까지 100여 년 간 이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말이산고분군으로

최근 조사 성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고암반대’ 축조기법은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의 주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사한 입지를 가진 말이산 2호분과 4호분 등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문외고분군의 조사 및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더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독특한 무덤축조방식의 공유는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의 고분군 축조집단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말이산고분군에서는 6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대형분이 조성되지 않는 반면 남문외고분군에서 6세기 전반에 6호분, 11호분과 같은 대형 굴식돌방무덤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묘역이 말이산에서 남문의로 이동함에 따라 축조집단이 이동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문의 6호분 조사 중 전경



남문의 7호분 조사 중 전경

참고문헌

고문헌
『威州誌』
『일본서기』
단행본
함안박물관, 2013, 『말이산』

보고서
마산대학교박물관, 1984, 『가야문화권유적 정밀지표조사 보고서-함안군-』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함안아라가야의고분군 Ⅰ』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아라가야문화권 유적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함안암각화고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함안도항리고분군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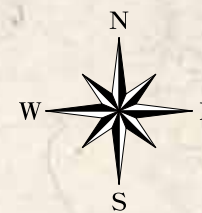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로 아라가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일어나고 있다. 말이산 45호분에서 출토된 집모양토기, 배모양토기는 1,600년 전 아라가야인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조선훈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사슴모양뿔잔은 뛰어난 예술성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초대형 굴식돌방무덤인 남문의 6호분은 529년 고당회의를 개최하며 다른 가야로부터 어버이로 여겨졌던 6세기 아라가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아라가야 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는 기록과 자료의 부족으로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있다. 향후 이어질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하나의 ‘말이산’으로서 아라가야 왕릉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역사가 함안이라는 지역사를 넘어 가야사의 주역이자 우리 고대사의 한 축으로堂堂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라가야항토사연구회, 1998, 『안라고분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함안도항리고분군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함안도항리고분군Ⅲ』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함안도항리고분군Ⅳ』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함안미감총』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도항리고분군Ⅴ』

경남발전연구원, 2017, 『함안 남문의1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말이산 13호분 발굴조사 및 주변지역 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2015,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극동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 484-2번지 일원 시굴조사 보고서』
두류문화연구원, 2019, 『함안 말이산고분군 484-2번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②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다양한 매장방법을 보여주는 현장



조사구역 유구 배치도

0 10 20m

조사 구역
2010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조사분

조사경위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고대 창녕을 대표하는 유적이며, 현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7개 고분군 중의 하나이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을 중심 연대로 하는 고분군으로, 200여기 이상의 고분이 비화가야에서 신라로 이행해 가는 고대 창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63년 사적 제80호 교동고분군과 사적 제81호 송현동고분군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지금의 이름인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재지정 되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2012~2014년에 걸친 정밀지표조사 결과 217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¹⁾, 이후의 발굴조사에서도 지표에 드러나 있지 않은 고분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고분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현재 4개 군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구역은 II군에 해당한다. 2009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II군 16호묘²⁾와 주변을 정비 하는 중에 16호묘 주변에 있던 가옥이 추가로 매입되면서 일괄 정비를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구역인 16호묘 주변은 1920년대 사진을 통해 볼 때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민가가 들어서면서 봉토는 훼손되어 지표상에서 고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계단식 경작지로 활용되면서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다만 주택의 축대에서 고분의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고 주변에서 다수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어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은 곳이었다.

2009년 16호묘의 조사 이후 2015년 주택 2동을 철거한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원지형이 남아 있는 일부 구역에서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2018년 10월 추가로 매입한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도 석곽묘가 확인되어 주택에 의해 지형이 훼손된 구역을 제외한 전체 범위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창녕 교동고분군
조사구역 전경(2019년)

2.
창녕 교동고분군(1922년)

3.
창녕 교동고분군(1922년)



1) (재)우리문화재연구원 · 창녕군,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종합학술연구 보고서-」

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창녕군, 2013, 「창녕 교동고분군-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재)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실 작업일 수 80일이 소요되었다. 조사구역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곽·석실묘
30기와 옹관묘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4동과 수혈유구 9기,
배수로와 담장, 근대 석축 등도 조사되었다. 유물은 1,200여 점의 토기류, 귀걸이와 은제 관식, 목걸
이 등의 장신구류, 화살촉, 큰 칼 등의 철제 무기, 등자와 삼환령 등의 마구류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
이 1,700여점 가량 출토되었다.

고분은 16호묘를 기준으로 그와 등고선이 비슷한 위치에 매장주체부 5m 이상의 대형 고분 3기가 일
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그 사이로 중소형 고분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교동과 송
현동고분군의 조사는 대형 봉토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조사구역에는 중소형 고분이 밀집 분
포하고 있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 대형 봉토분과 중소형 고분의 상관관계, 시기에 따른 고분군의
공간적 조영원리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눈 여겨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매장방법이다. 대형 봉토분 조사에서는 잘 보
이지 않던 매장방법들이 이번 중소형 고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우선 매장주체부의 다양한 축조 방법이다. 형태적으로는 단벽의 상부 평면이 말각 또는 타원형을 띠
는 것과 뒤채움한 벽석 구조가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 내부에 있어서는 시상대를 조성한
것과 시상대 없이 굴착 면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정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특
히 시상대를 조성한 것 중에는 바닥 전체에 시상석을 깔 것과 2단 구조의 시상대를 가지는 것도 확인
되었다.



4.
8호묘 목재흔

5.
12호묘 순장 인골

6.
12호묘 전경



목관의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목재 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도 흥미롭다. 3기의 고분에서 목재 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는데, 시상석 위에 판재 3매를 장축방향과 나란히 놓은 흔적과 함께 목재의 바깥쪽에 목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고정석도 확인되고 있다.

유물의 부장 양상은 기본적으로 매장주체부와 양 단벽의 3분할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에서는 착장유물로 추정되는 귀걸이와 목걸이, 철제 칼 등이 확인되는데, 은제 관식과 귀걸이, 목걸이 등이 함께 출토된 고분도 있다. 토기류는 대체로 양 단벽의 부장공간에서 확인되며 머리쪽에는 유개고배, 연질토기 등의 작은 토기들이, 발치쪽에는 단경호 등의 큰 토기들이 묻혀 있다. 출토된 토기 중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토기도 1점이 확인되었다. 마구류도 8기 고분에서 확인되며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인골이나 부장 유물의 상부에서 확인되어 목관 위에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인골이 많이 확인되었다. 9기의 고분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주피장자의 인골인 경우와 순장, 추가장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특히 순장으로 보이는 12호묘의 경우는 발치 쪽 부장공간을 구획하여 남쪽 장벽에는 토기를, 북쪽 장벽에 치우쳐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추가장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조사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사례가 없었는데, 2기의 고분에서 인골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0호의 경우 매장주체부와 동단벽 부장공간에 연결하여 인골과 치아편이 확인되는데, 인골이 토기류의 상부에 있고 시상대가 2단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추가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2호의 경우는 깨진 호의 안쪽에서 집골集骨된 인골과 2단의 시상대 구조로 보아 추가장이 확실해 보인다.



- 7. 20호묘 전경
- 8. 20호묘 인골
- 9. 22호묘 인골
- 10. 17호묘 출토 이형토기

활용

이처럼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대형 봉토분 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매장양상들이 확인되었다. 유물의 다양한 부장양상, 추가장을 위해 1차 피장자의 뼈를 토기 부장공간으로 이동시킨 모습, 집골을 통한 추가장, 순장 공간의 구획, 목관의 사용과 목관 고정석 등 6세기 비화가야인들의 다양한 매장방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확인되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구역은 16호묘와 함께 곧 복원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16호묘는 횡구식석실로 내부 구조와 유물의 부장 양상들을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엔 조사된 중소형 고분은 대형분들 사이에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 고분군 내 대형분과 중소형분의 관계, 고분 크기에 따른 공간배치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고분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창녕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함께 삼국시대 고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가야유물의 보고(寶庫),
합천 옥전고분군

옥전고분군 M3호분



옥전고분군에서
가장 주목받는 왕릉 M3호분
동아시아 역사의 한쪽을 채워 넣을
중요한 자료



옥전고분군 도굴 모습



M3호분 주곽의 유물 출토상태

옥전고분군의 발견과 조사
1985년 7월 경상대학교박물관은 황강 하류를 중심으로 유적을 찾는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상류의 합천댐 수몰지구에서 많은 선사·가야 유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며칠 만에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쌍책면소재지의 뒤편 구릉 능선에서 옥전토성과 대형 고분군을 발견했던 것이다. 언덕 정상부에는 직경 20m 안팎의 중대형의 봉분 수 십기가 확인되었다. 그 동안 방치되어 수풀이 우거지고, 도굴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천 오백여년의 세월동안 그 자리에서 버텼던 것이다. 박물관은 유적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마침내 유적을 확인한 지 4개월 만에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M4 토기



68호 판갑옷

쏟아지는 유물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85년 11월 25일, 공식적인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가야왕릉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국적인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힘입어 199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서 총 122기의 고분과 4천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

조사결과는 가야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다양한 연구로 이어져, 이곳 유적이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던 “다라국多羅國”의 실체임을 밝혀내게 되었다. 유적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적 326호로 지정되었고, 합천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5차례 걸쳐 이루어진 조사

총 122기의 고분과 4천여 점의 유물 발굴

1) 조사결과는 10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어 학계와 일반에 공개하였다.



M3 금동장투구



M1 로만글래스



M6 이식

그리고 발굴로 출토된 유물들은 현재 경상대학교박물관과 합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등 경향 각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옥전고분군 최전성기의 왕릉, M3호분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가장 주목받는 왕릉은 M3호분이다. M3호분은 1987년 2차 조사에서 발굴되었다. 발굴은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트렌치조사를 통해 무덤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봉분조사와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분의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돌덩이들을 돌려 경계를 보강하였다.

내부의 무덤은 긴네모꼴로 나무곽을 짜고, 그 바깥에 돌덩이

를 채워 넣은 형태였다. 무덤곽을 덮는 뚜껑돌은 없었으며, 곁가운데에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주검을 묻는 공간과 부장유물을 묻는 공간을 구분하였다. 무덤의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조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흙틈 사이로 유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물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했기에 금속도구는 물려내고, 대나무칼과 붓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대나무칼 끝을 이용하여 흙이 흙을 밀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M3호분의 전모가 드러났다.

지금껏 본적 없는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이어갔다. 동아시아 역사의 한쪽을 채워 넣을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연구자들조차 애써 흥분을 참아야 했다.²⁾

2) M3호 무덤에서는 121매의 주조철부와 금동장투구, 2벌의 말투구, 다양한 제철도구와 장식마구, 두 마리의 시승 등 엄청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야고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던 용봉문화두대도가 4자루나 출토되었다. 마침 발굴이 이루어진 해는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해이자, “용”의 해이기도 해서 언론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위에서 부터
용문장환두대도(龍文裝環頭大刀)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 A, B
단봉문대도(單鳳文環頭大刀)



합천 옥전고분 M3호 왕의 칼

단연 돋보이는 유물,
용봉무늬고리자루큰칼(龍鳳文環頭大刀)
옥전발굴 이후 30 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옥전유물들은 가야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말갖춤새와 각종 무기, 무구들, 금동관과 관모,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로만글래스 등 어느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M3호 무덤에서 출토된 용龍과 봉황鳳이 새겨진 4자루의 고리자루큰칼이다. 용과 봉황이 새겨진 대도가 한꺼번에 4자루나 출토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4자루의 왕의 칼은 모양도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단봉문환두대도單鳳文環頭大刀이다. 칼날은 직도直刀이다. 왕의 칼다

운 화려함은 손잡이부분에 구사되어 있다. 둥근고리의 표면에는 용문양이 실감나게 채워져 있었고, 고리 안에는 한 마리의 봉황이 맹위롭게 자리잡고 있다. 부리는 굳게 다물었고, 눈은 태양처럼 빛나며, 귀는 뒤쪽으로 휘날린다. 머리 위의 커다란 뿔은 뒤쪽 끝을 위로 말아서 원이 되게 하였다. 손잡이는 비대칭으로 만들어 빗금을 새긴 은사를 108번 정도 돌려 감았다. 얼마나 정교하게 감았는지 재현조차 어려울 정도다. 손잡이의 위아래에는 상징화된 용을 장식한 금판으로 마무리하였고, 칼집머리장식에도 용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대도는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이다. 손잡이 끝은 둥근 고리를 돌렸는데, 용문양을 부각시켰다. 고리안쪽에는 용과 봉황을 만들어 넣었다. 서로 목을 비틀어 교차하면서 반대

가야를 대표하는 유물
용(龍)과 봉황(鳳)이
새겨진 4자루의 고리자루큰칼

방향을 경계하고 있다. 벼슬과 부리를 가진 것이 봉황이고, 입을 벌려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이 용이다. 손잡이 아래의 금판에는 두드려 도드라지게 용을 새겼다. 2마리의 용(쌍룡)은 서로의 몸을 비틀면서 하늘로 용솟음치고 있다. 손잡이부분은 나무를 덧대고, 그 위에 두터운 은사銀絲를 70~80번 돌려 감았다. 손잡이 윗부분과 칼집도 용문양 금판을 돌려 장식하였다.

네 번째 대도는 용문장환두대도龍文裝環頭大刀이다. 타원형 고리에는 머리를 반대로 한 두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용은 입을 크게 벌리고, 불을 토하고 있다. 고리 속은 비워 두었다. 손잡이에는 빗금이 새겨진 금사를 일정한 폭으로 나선형 모양으로 8번 감아 돌렸다. 손잡이 양 끝에는 용문이 새겨진 금구를 돌려 장식하였다. 2마리의 용이 교차하며 솟구치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었다. 몸의 굽기에는 변화를 주어 사실감을 더했다. 손잡이 양쪽의 금구에는 금판위에 용문이 투조된 은판을 감아 붙였다.

현재 이들 4자루의 칼은 각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단봉문과 용문장의 환두대도는 신축된 경상대학교박물관, 용봉문환두대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옥전고분군, 그리고 다라국

옥전고분군의 발굴조사는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던 다라국의 실체를 밝혀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옥전토성(성산리토성)의 발굴자료가 더해지면서 다라국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새로운 의미의 다라국으로 우리에게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2003, 『陝川玉田古墳群 I ~ X』
박승규, 2014, 「합천 옥전 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기록되지 않은 기억」, 경상대학교박물관
송영진, 2019, 「또 하나의 가야왕국, 다라국」, 「제19기 가야학아카데미 - 고고학으로 만나는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조영제, 2014, 「옥전고분군, 발굴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록되지 않은 기억」, 경상대학교박물관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부산 북천동고분군
발굴과 보물들

김동윤
북천박물관



북천동고분군¹⁾

발굴 50년



북천동고분군 전경(1970년대)



북천동고분군 전경(2019년)



북천동고분군의 차수별 발굴조사 범위

부산의 중심인 동래에 위치한 북천동福泉洞은 맛이 좋은 우물인 옥샘玉井(현재 우성베스트피아 아파트 자리)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국시대 가야 무덤들이 자리한 북천동 구릉은 무덤의 존재가 잊혀진 채 오랜 세월 흘러오다가, 1950년 일어난 6·25전쟁 피란민들의 거주지로 변하였다. 구릉의 가장 높은 지역만 제외하고 농선과 경사면을 가리지 않고 관갯집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섰다.

이후 1969년 구릉 동편 경사면에 새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택지공사 중 우연히 고분이 발견되었다. 뚜껑돌이 반듯하게 덮인 구덩식 돌덧널무덤에서는 금동관 2점을 비롯하여 큰항아리, 등잔모양토기 등의 토기, 100여 점에 이르는 덩이쇠와 화살촉, 검 등의 철제 무기가 출토되었다. 이렇게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북천동 1호분”²⁾은 북천동고분군에서 조사된 최초의 무덤이자, 부산지역 가야사 연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무덤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1974년까지 북천동 구릉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주로 택

지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마당, 부엌,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도 확인되었다.

1980년 북천동 구릉에 대한 부산시의 택지 개량사업이 수립되었다. 420여 세대 주민들은 공동으로 연립주택조합을 결성하고 남아 있는 구릉지대에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부산시로부터 연립주택 건설허가를 받았다. 70년대 발굴성과를 인지하고 있던 당시 부산시 문화공보실 문화재연구관인 박유성(전 부산박물관장)과 부산대학교 박물관 조교였던 임효택(전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은 연립주택조합을 설득하는 한편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발굴허가 절차를 밟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10일간의 시굴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제1차 발굴조사의 결과는 놀라웠다. 금동관, 철제 갑옷, 말감옷, 화살통, 청동칠두령과 같은 국내 최초·최고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연일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었다. 북천동고분군의 확인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우리나라 가야문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은 북천동고분군은 1981년 6월 9일 국가사적 제273호로 지정되어 보존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까지 제2~4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함께 북천동고분군의 정화 사업 및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1993~1994년에 걸쳐 정화사업에서 불가피하게 파괴되는 구역에 대한 조사 및 고분군 전체의 무덤 분포 파악을 위한 제5차 발굴조사가 실시된 이후 1996년 고고학 전문 박물관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현 북천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연차적 매입 및 지장물 보상과 연이은 학술 발굴조사는 박물관 건립으로 1차적인 결실을 맺었다.

박물관 건립 이후에도 북천동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과 이에 수반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97년과 2002년 이루어졌

- 1) 2011.07.28.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변경된 정식 사적 명칭은 '부산 북천동고분군'으로 원래는 '동래 북천동고분군'이었다. 편의상 '북천동고분군'으로 줄여서 서술하고자 한다.
- 2)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사 무덤에 대하여 통상 '북천동 ~호분(동)'으로 표기하며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이는 1980년부터 시작된 정식 발굴조사 때 1호부터 새롭게 호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서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된 조사에서는 북천동고분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200년 가량 올려볼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삼국시대 가야문화에 선행하는 삼한시대 변진독로국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제8차 발굴조사를 끝으로 북천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단락되었고 사적 범위도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지난 발굴성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북천동고분군의 실제 범위는 지금의 사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는 향후 벌어질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과제를 남기는 것과 동시에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북천동고분군은 개발과 보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현장 역사에서 문화 유산 보존의 척도가 된 유적으로 평가되며, 단순한 국가사적을 넘어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고분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북천동에서 출토된 보물들

북천동고분군에서는 10,00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³⁾ 이 중 4건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특히 2018년 문화재청은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가야문화권 출토 유물에 대해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북천동고분군 출토 유물 2건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3월 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2건을 포함하여 그동안 보물로 지정된 4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북천동고분군 출토 유물은 국가귀속 및 행정보고 수량 기준으로 9,092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보고 무덤에 대한 보고서 간행작업, 추가 국가귀속 및 수량 정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예정이다.



북천동고분군 전경



말머리 장식 뿔잔 출토 상태

말머리장식 뿔잔馬頭飾角杯(1975년 보물 제598호로 지정)은 1970년 조사된 북천동 7호분(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신라·가야 지역의 무덤에서는 여러 형태의 뿔잔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뿔잔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걸작이다. 2점이 한 쌍으로 출토되었는데, 큰 것은 높이 14.4cm, 길이 17cm, 작은 것은 높이 12.1cm, 길이 17cm로 크기가 서로 다르다. 전체적인 형태와 제작 수법은 거의 동일한데, 뿔잔의 밑부분 끝에 말머리를 빗어 붙이고, 그 뒤쪽으로 조그만 다리를 2개 붙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말머리의 전체적인 형상은 귀·눈·코 등 말의 특징적인 표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2점 중 큰 것은 동아대 학교 박물관, 작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말머리장식 뿔잔
(馬頭飾角杯, 1975년 보물 제598호로 지정)



금동관
(金銅冠, 2016년 보물 제1992호로 지정)



세움장식 세부 모습

금동관金銅冠(2016년 보물 제1992호로 지정)은 북천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 때 북천동 1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부산 지역에서 출토된 3개의 관 중 유일한 가야의 관으로 신라의 전형적인 형태인 산자형山字形 금[동]관의 시원적인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금동관은 청동 판에 앞뒤 양면을 금도금한 것으로, 가는 띠 모양으로 머리에 두르는 부분과 3개의 세움 장식으로 구성된다. 띠 부분 표면에는 상하 테두리를 따라 연속 물결무늬를 새기고, 그 내부에 점을 찍는 파상점열문波狀點列文이 배풀어졌다. 세움 장식은 양쪽으로 대칭된 나뭇가지 형태[樹枝式]로 장식 끝은 보주형寶珠形이다. 세움 장식의 표면에 금동의 작은 달개를 여러 개 달아 장식하였다.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금동관 출토상태



청동칠두령
(靑銅七頭鈴, 2019년 보물 제2019호로 지정)



북천동고분 22호분 유물 출토 상태

청동칠두령靑銅七頭鈴(2019년 보물 제2019호로 지정)은 북천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 때 북천동 22호분에서 출토된 7개의 방울이 달린 청동제 방울이다. 북천동 22호분은 길이 680cm, 너비 640cm, 깊이 290cm의 무덤 구덩이를 판 후 그 내부에 돌덧널을 쌓은 무덤으로 으뜸 덧널에 해당한다. 북천동고분군의 가장 높은 곳에 축조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50cm 떨어져 딸린 덧널(21호분)이 위치한다. 무덤의 주인공이 안치되어 있었던 자리에는 3자루의 고리자루큰칼과 대형 덩이쇠·갑옷·창·화살촉·손칼을 비롯한 많은 철기류와 곱은옥이 달린 목걸이, 귀걸이, 각종 토기류가 출토되어 부장품의 양이 다른 무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청동제 방울은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쳐 의례에 사용된 팔주령八珠鈴, 쌍두령雙頭鈴 등 여러 점이 알려져 있으나 삼국시대 유물로는 유일하다. 청동칠두령은 둥근 본체와 그 아래에 난 손잡이로 이루어졌으며 속이 비어있다. 둥근 본체에 주관알 모양의 7개의 방울이 사방으로 달려있으며 각 방울은 네 군데씩 길게 잘라 장식하였다. 현재 정면에서 9시 방향에 위치한 방울 안에 유일하게 구슬⁴⁾이 남아 있으며, 손잡이 안쪽에 나무 자루의 흔적이 남아 있어 자루를 쥐고 흔들어 소리를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칠두령은 5세기 전반 동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최고 지배자가 주술적·상징적 의미로 지녔던 물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북천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4) 구슬의 성분에 대해서는 분석된 적이 없는데, X-ray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속재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판갑옷 보수 흔적

이러한 유물을 통하여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전기가야의 중심지이자 맹주국의
묘역이었던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고대사에서
가야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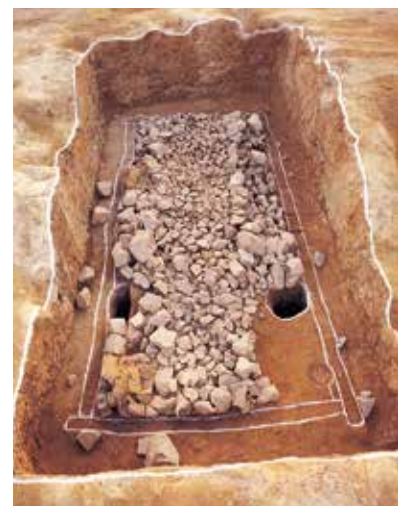


철제갑옷 일괄
(鐵製甲冑 一括, 2019년 보물 제2020호로 지정)

철제갑옷 일괄鐵製甲冑 一括(2019년 보물 제2020호로 지정)은 북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때 북천동 38호분의 으뜸 덧널에서 출토되었다. 북천동 38호분은 4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딸린 덧널이 있는 대형의 덧널무덤으로 으뜸 덧널의 구덩이는 길이 750cm, 너비 350cm, 깊이 150cm에 이른다. 철로 만든 판갑옷, 비늘갑옷, 투구 등 이른 시기의 철제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400여 점의 화살촉, 창 등 공격용 무기가 다양으로 확인되어 당시 무기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가죽 등 유기질이 아닌 철제로 된 초기 갑옷이 일괄로 확인되어 삼국 시대 갑옷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판갑옷은 4~5세기 신라·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갑옷 형식으로 북천동 38호분 출토 판갑옷은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판갑옷은 기본적으로 철판

을 두드려 세로로 길게 만든 철판을 가죽 끈으로 연결한 것이며 맨 아랫단에는 가로로 긴 철판을 둘렀다. 판갑옷의 몸통 앞쪽에는 보수를 위해 작은 철판을 덧댄 흔적이 있어 이 갑옷이 실전용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가리개 역시 세로로 긴 철판을 가로로 연결한 후 그 아래로 가로로 긴 철판을 감은 형태이며 가죽 끈 흔적으로 보아 판갑옷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구는 전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S'자형으로 긴 철판 20매를 엮어 만들었으며 그 위에 작은 복발을 엮었다. 아래 부분에는 각각 2매의 철판을 엮어 불가리개를 만들었다. 당시 가야에서는 대형 고분을 만들 때 철제 갑옷이 중요한 부장품으로 매납埋納되어 단순 방어용 무구로서의 의미를 뛰어넘는 권력의 상징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천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북천동고분 38호분 유물 출토 상태



숫자로 본
부산 복천동고분군

2

금동관이 출토된 무덤

복천동 1호(동)

복천동 11호

3

출토된 금동관 개수

복천동 1호(동) 2개

복천동 11호 1개

4

복천동고분군 출토 유물 중

국가 지정 문화재

말갑옷 출토 무덤 10·11호

34호

35·36호

학소대 1구 3호

17

판갑옷 출토 무덤

4호, 10·11호, 38호,

42호, 43호, 44호, 46호,

56호, 57호(2개체), 64호, 69호(2개체),

71호(2개체), 73호, 86호(4개체),

112호, 164호, 165호

26

현재까지 발간된

복천동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대학교 박물관 : 3권

부산대학교 박물관 : 11권(학소대고분, 복천동고분군 Ⅰ~Ⅹ)

부산박물관·복천박물관 : 12권(내성유적 외 11권)

188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복천동고분군의 무덤 숫자

동아대학교 박물관 : 11기(칠산동 1호(동), 복천동 1~10호(동))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박물관·복천박물관 : 177기(학소대 3기, 내성 11기, 복천동 163기⁵⁾)

273

1981년 6월 9일 사적 273호로 지정

278

현재까지 확인된 복천동고분군의 무덤 숫자

발굴된 188기를 포함한 미조사 무덤 90기(75호(4차 발굴),

74기(5차 시굴), 14기(7차 시굴), 163호(8차 발굴))

5)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제1차 발굴조사부터 새롭게 부여된 무덤 호수는 현재 1호부터 174호까지이다. 무덤에 부여된 호수보다 실제 조사된 기수가 11기 적은 이유는 제1차 발굴조사 당시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에 각각 호수를 부여한 무덤 9기(2·27호, 8·9호, 10·11호, 14·24호, 19·20호, 21·22호, 25·26호, 31·32호, 35·36호)와 호수 부여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무덤 2기(75·163호)가 호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 건립된 고고학 중심 국립박물관이다. 가야의 건국신화가 깃든 구지봉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8년 7월 개관하였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국립김해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부산·경남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장하고 있다. 특히 김해, 함안, 고령, 고성 등 가야 주요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며 이를 통해 연구와 전시·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전경

국립김해박물관의 소장품은 모두 156,000여 점이다. 그 중 선사시대부터 가야에 이르는 대표 문화재 4,000점이 상설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7개의 전시실이 2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1층은 ‘가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하여 1~3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전시실은 ‘낙동강 하류역의 선사문화’를 테마로, 낙동강 하류역의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선사 문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전시실은 ‘가야의 여명’으로 가야 성립 이전 단계에 낙동강 서쪽에서 일어난 변한의 문화를 소개한다. 와질토기와 다양한 철제품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3전시실은 ‘가야의 성립과 발전’으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등을 중심으로 가야 각국이 성립과 발전, 6세기 전반~ 중반 신라에 병합되기까지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2층은 ‘가야와 가야 사람들’의 주제로 4~7실로 구성되어 있다. 4전시실은 각종 생활용품, 집모양토기 등을 통해 가야 사람들의 의식주를 보여준다. 5전시실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야토기’라는 주제로 세련된 곡선미로 대표되는 가야토기를 소개하고 있다. 6전시실은

가야가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었던 철문화를 소개한다.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과 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된 갑옷과 다양한 철제무기를 통해 철의 왕국, 가야를 만나게 된다. 7전시실은 중국, 일본계 유물들을 통해 가야와 주변국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배와 노를 복원, 전시하는 등 ‘해상왕국 가야’를 조명하였다.

그 외에도 가야를 비롯한 전 시대를 망라하여 다양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해마다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승된 우리나라의 옷칠 문화를 조명한 특별전 “고대의 빛깔, 옷칠”(2019.6.25. ~ 9.29.)이 전시 중이다. 때때로 소규모 전시인 테마전시가 기획되는데, 현재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집모양 토기를 전시하고 있는 테마전 “가야의 집 The House-shaped Pottery”가 진행 중이다.

국립박물관은 가야와 관련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허브로 가야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국민에게 전하고 있다.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 모습



사진제공 :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으로,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가야문화권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문화유산 연구기관이다. 경남도청이 소재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1990년 6월 창원문화재연구소로 개소하였다. 이후 2005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로, 2007년에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 개칭되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II군 39호분 조사 모습

1995년 청사 건립 후 2004년에 출토유물보관동을 건립하고, 2018년에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를 신축하였다. 조직은 1과 1실로, 연구소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운영과와 문화유산 조사·연구, 출토 유물 보존처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그간 학술조사 및 연구가 부진했던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밝히기 위하여 가야문화권의 주요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출토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분석, 유적 보존·정비 방안 수립, 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연구 교류 및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그동안 연구소의 조사·연구 성과와 주요 문화재에 대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마련하였고, 2018년 10월, 특별기획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木簡)의 여정”을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금관가야의 핵심유적인 김해 봉황동유적, 아라가야의 추정 왕성지인 함안 가야리유적과 우거리 토기 생산 유적, 대가야의 중심 고분인 고령 지산동고분군, 비화가야의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및 영산고분군, 소가야의 고성 내산리고분군 등 각 가야문화권별 주요 유적이 발굴조사를 다수 실시하여 가야

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 성과를 토대로 가야 사람 복원 연구, 가야고분 축조기법 및 입지환경 분석 연구, 가야토기 연구 등 기획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가야 외에도 진주 대평리 선사유적, 창원 상남동 지석묘, 함안 성산산성, 산청 단속사지, 창녕 술정리사지, 울산 병영성 등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중요 유적을 조사하였고, 경남지역의 봉수, 사지(寺址), 석탑 등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유적 중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250여 점의 목간과 다양한 목기들이 출토되었고,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는 녹나무제 대형 목관과 다종다량의 목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이를 보존처리, 분석, 자료를 집성하여 자료집 ‘나무 사람 그리고 문화’를 발간하고, 국공립박물관과 공동기획 특별전시와 학술심포지엄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비롯하여 국내 유적 출토 고대 목간을 집대성하여 ‘한국의 목간’으로 웹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일환으로 가야사 관련 문헌 및 발굴유적 자료를 총망라한 『가야 자료총서』(2018)를 발간하였고, 2018년 영·호남 지역 가야 유적 분포 현황조사에 이어 2019년 현재 정밀 분포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성과는 보고서 등 책자 발간이나 각종 학술활동으로 관련 연구자 및 국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유적도 수시로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답사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정책 사업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협조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보존과학실



가야 자료 총서 소개



가야 관련 역사문화정보의
대국민 활용체계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가야와 관련한 자료를
총망라한 『가야 자료 총서』를 기획한 후
총 7권(1질)을 2018년 11월 발간

지난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우리 고대사에서 삼국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가야의 역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가야 관련 역사문화정보의 대국민 활용체계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가야와 관련한 자료를 총망라한 『가야 자료 총서』를 기획하여 2018년 11월에 발간하였다.

총 7권 1질로 구성된 『가야 자료 총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와 관련한 문헌·금석문 등 각종 사료와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자료, 논저목록 등 국내에 있는 가야 관련 모든 자료를 총망라한 것으로, 3,34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총서는 문헌 사료편, 일제강점기 자료편, 유적 발굴조사 자료편, 논저 목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 사료편(1권)’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과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가야 관련 문헌 사료집은 각각 사서에 기록된 기사를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서는 가야사의 흐름에 맞추어 먼저 표제를 정하고, 관련 기사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자료편(1권)’은 1907년부터 1939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총 33개의 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금관가야의 성립과 대외 관계를 보여 주는 김해 회현리 패총(현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패총) 발굴조사 자료, 대가야의 대표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제

79호) 발굴조사 자료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野帳)의 기록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았다.

‘발굴조사 자료편(4권)’은 영·호남지역의 38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 유적 638개소의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한, 가야 중심 권역 이외에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야 유적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다. 특히 유적이 위치한 정확한 지점과 범위를 표시하여 학술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저 목록편(1권)’은 가야와 관련된 문헌·금석문 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 자료 목록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간행된 가야 관련 논저 총 5,164건을 정치·군사, 사회, 문화, 경제, 외교, 지리·교통, 종교·사상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하고, 색인을 구성하여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는 도서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원문정보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go.kr/gaya)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총서에 수록된 자료는 복원과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야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에서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유물 자료와 국외에서 간행된 논저목록을 정리한 『가야 자료 총서 - 국외 자료편』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며, 총서로 구축된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가야 관련 모든 자료를 총망라
3,34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전시 / 행사



❖ 테마전 **가야의 집 The House-shaped Pottery**

전시기간 2019.7.12.(금) ~ 2019.9.1.(일)

전시장소 국립김해박물관 테마전시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김해박물관은 테마전 「가야의 집 The House-shaped Pottery」 개최를 통하여 가야 문화권에서 출토된 집 모양토기 6점에 대해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가야 사람이 살았던 집의 모습과 공간 조성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 <http://gimhae.museum.go.kr>

❖ 특별전 **의식주, 1600년 전 북천동사람들**

전시기간 2019.9.10.(화) ~ 11.3.(일)

전시장소 북천박물관

북천박물관은 1,600년 전 북천동을 무대로 펼쳐졌던 옛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2019년 특별기획전 『衣食住, 1,600년 전 북천동 사람들』을 개최한다. 전시는 크게 ‘의복(衣)’·‘음식(食)’·‘주거(主)’·‘생산(産)’·‘교역(易)’·‘의례(禮)’라는 6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북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동래 패총, 낙민동 유적과 최근 발굴조사된 두구동 취락 유적에서 출토된 당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북천박물관 <http://museum.busan.go.kr/bokcheon>

❖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

전시기간 2019.12.3.(화) ~ 2020.3.1.(일)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은 우리 문화 형성에 기여한 고대 국가 가야를 제대로 인식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전시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가야인의 삶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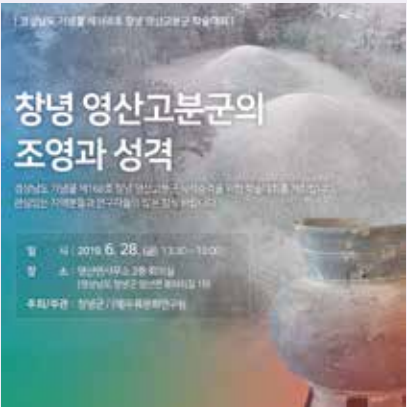
❖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9.4.24.(수)

장소 합천박물관 대강당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실체가 확인된 가야도성인 『성산토성』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성산토성은 5~6세기 대 축조된 다라국의 성으로 가야성곽의 축성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성산토성(경상남도기념물 제293호)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산토성의 보존과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토론 하였다.

합천군 <http://www.hc.go.kr/>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http://www.gnchc.re.kr/>



❖ 『함안 가야리유적(傳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일시 2019.4.30.(화)

장소 함안문화원 대공연장

함안군과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는 『함안 가야리유적(傳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아라가야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가야리유적 토성 축성기법과 의의, 가야리유적 토성의 토목사적 의의, 한성백제기 왕성, 신라의 왕성과 가야 왕성의 비교 및 가야리유적의 보존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토론 하였다.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http://portal.changwon.ac.kr/home/cgs>

❖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창녕 영산고분군 학술대회

『창녕 영산고분군의 조영과 성격』

일시 2019.6.28.(금)

장소 영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창녕군이 주최하고 (재)두류문화연구원이 주관한 학술대회로 영산고분군의 현황과 조사 성과와 고고학으로 본 비화가야의 새로운 접근, 고분 축조기법으로 본 영산고분군, 창녕 영산고분군의 정비·활용에 대해 발표·토론 하였다.

두류문화연구원 <http://duryu.or.kr>

❖ 학술심포지엄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일시 2019.7.11.(목)~12.(금)

장소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 연구의 활성화와 역사문화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호남과 영남 경계 가야문화권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발표·토론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naju>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gaya>

전시 / 행사



✿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 별자리 발굴기념 고대 별자리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고대별자리』

일시 2019.8.22.(목)

장소 함안군청 대회의실

함안군에서는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 13호분 내부에서 최초로 가야 별자리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고 향후 천문학적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한국천문학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말이산고분군 현장에서 「아라가야의 해와 달, 그리고 별」행사를 개최한다.

함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haman.go.kr>



✿ 가야 역사·문화 연구논문 공모

공모기간 2019.9.30.(월) 까지

공모주제 가야사, 가야고고학 등 가야 관련 자유 주제

공모자격 가야의 역사·문화에 관심있는 연구자 누구나
※단, 학술논문 5편 이상 논문 게재자 제외, 학위논문 제외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

논문작성요령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간행규정(논문작성요령)에 준함

시상내용 - 심사위원에서 당선 확정 후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당선 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및 논문집 간행 예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gaya>



✿ 시민과 함께 하는 『2019년도 가야 문화유산 답사』

일시 2019. 5.24.(수), 8. 28.(수), 9.52.(수), 10.25.(금)

장소 가야유적지(함안, 합천, 고령, 김해, 창녕)

대상 일반시민 20명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 역사문화 향유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가야 역사문화인식 향상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가야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gaya>



✿ 2019년 가야 학술 제전

기간 2019.6.1.(토), 7.12.(금), 8.30.(금), 10.25.(금)

전시장소 국립김해박물관 세미나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가야 문화 복원 연구’의 핵심 사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가지 주제를 기획하여 ‘2019 가야 학술 제전’을 개최한다. 5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문자로 본 가야 ② 삼한의 신앙과 의례
- ③ 삼국시대 마주와 마갑의 연구 성과와 과제
- ④ 가야사람 풍습 연구 - 편두
- ⑤ 가야 직물 연구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 <http://gimhae.museum.go.kr>



✿ 2019 김해문화제야행 『가야왕도를 거닐다』

행사기간 2019.9.20.(금) ~ 21(토) 2일간, 18:00 ~ 23:00

행사장소 김해 봉황동 유적 등 가야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문화재청, 경상남도, 김해시/(재)김해문화재단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 달빛탐방’ 프로그램의 ‘왕궁코스’로 현재 발굴조사 중인 봉황동 유적 발굴현장을 공개하여 금관가야 왕도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

김해관광포털 <http://www.김해문화제야행.com>



✿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가야와 왜의 토기 생산과 교류』

일시 2019.10.18.(금)

장소 함안문화예술회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도 연구과제 가야 고분과 유물 연구의 일환으로, 가야 토기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재)가야문물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학술심포지엄은 가야 토기의 대내외 생산과 유통, 일본 스에키의 출현과 전개 검토를 통한 가야와 왜의 통섭 관계 규명에 대해 발표·토론 하고자 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gaya/>
(재)가야문물연구원 <http://www.hangyeore.co.kr>

가야문화권 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황

연번	시군	유적명	지정사항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현황	조사목적
01	고성	내산리고분군 (40·44·46호분)	사적 제120호	정밀발굴조사	‘19.7.~11.	(재)강산문화연구원	추진중	봉토분에 대한 정밀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해 유구의 구조, 성격, 축조방법 등을 파악하고, 출토유물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향후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복원정비 진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 확보
02	김해	봉황동유적	사적 제2호	정밀발굴조사	‘19. 3. ~ 11.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추진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과제 “가야 중심권역 경관 복원 연구”의 일환으로 금관가야의 고대 도시유적 복원 및 유적 보존·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03	김해	양동리고분군	사적 제454호	정밀발굴조사	‘19.7.~ 9.	(재)한화문물연구원	추진중	발굴조사를 통해 양동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및 유적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04	김해	원지리고분군 (M3호분)	도기념물 제290호	정밀발굴조사	‘18.9.~‘19.1.	(재)가야문물연구원	완료	원지리고분군의 보존·보호 방안 마련 및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자료 확보
05	김해	예안리고분군	사적 제261호	시굴조사	‘19.5.	(재)두류문화연구원	완료	조사구역 내 유적의 정확한 분포범위를 확인하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조사에 활용
06	김해	대성동고분군	사적 제341호	시굴조사	‘19.7.~ 8.	(재)경남문화재 연구원	완료	대성동고분군의 분포 범위 확인 및 조사 자료를 통한고분군 종합정비계획 근거 마련
07	김해	분산성	사적 제66호	시굴조사	‘19.7	(재)가야역사문화 연구원	완료	시굴조사를 통해 분산성 내 집수지의 위치 및 관아터의 범위 확인
08	김해	유하리유적	도기념물 제45호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18.10.~‘19.5.	(재)한화문물연구원	완료	유하리유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고, 성격규명을 통해 가야시대 생활사 복원자료를 마련
09	김해	시산리고분군	비지정	시굴조사	‘19.4.~5.	(재)두류문화연구원	완료	봉분의 매장주체부 유무 및 기저부 조사를 통해 고총고분의 잔존유무와 범위 및 시기와 성격을 확인하여 향후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10	산청	생초고분군	도기념물 제7호	시굴조사	‘19.6.	(재)극동문화재 연구원	완료	산청 생초고분군 복원 정비를 위한 기저부 시굴조사
11	양산	북정동고분군 (7호분)	사적 제93호	시굴조사	‘19.5.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완료	북정동고분군 복원정비를 위한 7호분 시굴 조사로서 향후 진행될 발굴조사 계획 수립
12	양산	중부동고분군 (19호분)	사적 제95호	정밀발굴조사	‘19.2.~7.	(재)우리문화재 연구원	완료	문화재 실체 규명하고 주변 수목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 현황 파악 및 보호
13	의령	유곡리고분군 (3-1·4호분)	비지정	정밀발굴조사	‘19.3.~5.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완료	고분군의 보존·정비 계획을 수립
14	의령	중리고분군 (1호분)	비지정	정밀발굴조사	‘19.1.~2.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완료	중리고분군 복원 및 정비
15	진주	가좌동고분군	비지정	시굴조사	‘19.2.~4.	(재)극동문화재 연구원	완료	진주 가좌동고분군 복원·정비를 위한 기저부 시굴조사
16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39호분 등)	사적 제514호	정밀발굴조사	‘19. 3. ~ 12.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추진중	국립가야연구소 2019년 연구과제 “가야 고분과 유물 연구”의 일환으로 비화가야권 고분 조사 추진
17	창녕	영산고분군	도기념물 제168호	시굴조사	‘19.8.	(재)경상문화재 연구원	추진중	고분군의 성격 규명 및 정비 필요구역 내 고분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정밀발굴조사와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
18	창녕	계성고분군 (1·15호분)	사적 제547호	정밀발굴조사	‘18.11.~‘19.6.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완료	고분의 봉토 축조공정 및 매장주체부의 구조, 축조기법, 성격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존방안 수립
19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16호묘 등)	사적 제514호	정밀발굴조사	‘18.12.~‘19.4.	(재)우리문화재 연구원	완료	고분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보존·보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2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교리 425번지)	사적 제514호	시굴조사	‘19.7.~8.	(재)우리문화재 연구원	추진중	이번 조사는 대상지역의 형질변경에 앞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보존·보호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연번	시군	유적명	지정사항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현황	조사목적
21	창녕	교리고분군 (504번지)	비지정	긴급 발굴조사	‘19.5.	(재)우리문화재 연구원	완료	창녕읍 교리 504번지 유적이 인접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연속되는 곳으로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노출된 유구의 보호방안 마련 및 사적 주변의 연속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 수립 필요
22	창원	현동유적	비지정	정밀 발굴조사	‘17.8.~‘19.6	(재)삼한문화재 연구원	완료	본 유적은 A.D.4C말~5C초 아라가야 전기 후반에 대규모로 조성되고분군이며, 내부에서 주요유물(배도양토기 등)이 출토
23	하동	우복리고분군	비지정	정밀 발굴조사	‘19.7.~ 9	(재)경남문화재 연구원	추진중	우복리고분군 내 훼손 고분의 보존관리, 고분의 구조 및 성격규명
24	함안	아라가야왕성지 유적	비지정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19. 3. ~ 11.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추진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과제 “가야 중심권역 경관 복원 연구”의 일환으로 아라가야 왕성지 실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25	함안	우거리토기 생산유적	비지정	정밀발굴조사	‘19. 3. ~ 11.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추진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과제 “가야 고분과 유물 연구”와 관련해 가야 토기 생산 및 유통체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26	함안	가야리유물산포 지	비지정	시굴조사	‘19.6.~7.	(재)한반도문화재 연구원	완료	함안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인 아라가야사 연구 및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여부 및 유적의 성격 규명
27	함안	말이산고분군 (도항리484-2)	사적 제515호	정밀발굴조사	‘19.2.~7.	(재)두류문화연구원	완료	말이산고분군 북쪽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8	함안	남문의고분군 (6·7·15호분)	도기념물 제226호	정밀발굴조사	‘19.3.~7.	(재)삼강문화재 연구원	완료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와 향후 보존정비방안 및 사적승격 방안 수립
29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	사적 제515호	정밀발굴조사	‘18.7.~‘19.12.	(재)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추진중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 재보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 및 학술적 규명
30	합천	옥전고분군	사적 제326호	시굴조사	‘19.8.	(재)한반도문화재 연구원	추진중	세계유산등재의 원활한 추진 및 체계적인 유적관리를 위한 학술자료를 마련하고 유적의 보존·보호방안 수립
31	합천	삼가고분군 (M24호분)	도기념물 제8호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18.11.~‘19.7.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완료	합천지역에 산재하는 가야유적의 학술적 가치 및 실체규명, 가야사 복원을 통한 합천지역의 정체성 확립하고, 삼가고분군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
32	남원	청계고분군	비지정	정밀발굴조사	‘19.5.~10.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추진중	고분군의 구조, 조성 및 운영 시기를 밝혀 유적 정비의 기초자료 확보, 매장시설 및 출토유물 분석을 통해 유적 보존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3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36호분)	사적 제542호	시굴조사	‘19.7.	전북대학교 박물관	완료	봉분과 석실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추후 보존과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3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29·30·31호분)	사적 제542호	시굴조사	‘19.6.~7.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	완료	봉분의 규모와 매장주체시설의 잔존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기초자료 확보
35	임실	금성리고분군	비지정	긴급발굴조사	‘19.6.~8.	(재)전라문화유산 연구원	완료	고분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축조방법, 축조시기 등을 파악하여 임실지역 가야문화의 성격 및 정체성 파악
36	임실	봉화산 봉수지	비지정	시굴조사	‘19.7.~8.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	완료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가야세력의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봉수지 조사를 통해 추후 보존 보호관리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야의 진출과정과 영역 확장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37	장수	삼봉리 추정왕궁지	비지정	시굴조사	‘19.4.~5.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추진중	유적 현황 및 성격 파악
38	장수	삼봉리고분군 (3호분)	도기념물 제128호	시굴조사	‘19.4.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	완료	미 조사된 구역에 대한 고분에 규모와 잔존양상을 파악해 유적의 정비방안과 보존대책 강구

가야유적 집성표(시군별)

지역		총 유적수*	무덤유적	생활유적	산업생산유적	정치국방유적	기타유적	유물산포지
경남	김해	161	66	41	4	7	1	42
	양산	126	26	9	2	6	0	83
	밀양	96	32	3	4	1	3	53
	창원	178	62	33	1	4	1	77
	함안	194	122	15	14	15	2	26
	의령	63	45	1	3	3	0	11
	진주	176	77	17	7	0	0	75
	창녕	100	32	5	4	6	0	53
	합천	73	52	5	2	10	0	4
	산청	72	50	8	1	1	0	12
	거창	61	34	9	0	8	1	9
	함양	49	9	4	1	6	0	29
	고성	93	46	4	0	8	0	35
	통영	30	6	7	0	0	0	17
	거제	47	15	7	0	0	1	24
	사천	79	18	5	1	2	0	53
	남해	20	3	3	0	3	0	11
	하동	51	16	5	0	3	1	26
부산	부산	157	31	22	2	1	0	101
경북	고령	105	53	10	6	15	1	20
	성주	105	80	6	3	4	0	12
전남	순천	41	6	6	1	3	0	25
	여수	34	2	10	0	3	0	19
	광양	18	0	12	0	1	0	5
	구례	4	1	0	0	0	0	3
	보성	3	0	3	0	0	0	0
	곡성	15	6	1	0	2	0	6
	고흥	6	4	2	0	0	0	0
전북·충남	남원	50	7	1	2	7	0	33
	순창	3	1	2	0	0	0	0
	장수	11	6	0	0	2	3	0
	임실	114	87	1	1	6	5	14
	진안	60	51	1	0	5	3	0
	완주	62	19	0	0	6	0	37
	무주	30	22	0	0	0	0	8
	금산	8	3	0	0	1	0	4
합계		2,495	1,090	258	59	139	22	927

※ 총 유적수에는 통합 유적을 1건으로 집계함
※ 복합유적(한 유적 내 여러 종류의 유적 분포) 및 통합유적(범위가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적일 경우)은 대표되는 유적의 종류로 집계함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 유적 분포 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 권역별 가야유적을 종류별로 작성한 것임



함안 가야리 유적 (2018.12.18)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2019.5.22)

五伽耶按駕洛記贊云無一禁總下大國郊餘五各屬五伽耶之圭金官不入五數當笑而本朝史畧並數金官而繼記呂齊誤

阿羅耶伽耶今咸古寧伽耶本咸大伽耶高星山伽伽

耶今京山小伽耶今固又本朝史畧云太祖天福五年庚子改五伽耶名一金官海府金二古寧爲加三卯大呂寧寧恐高訛餘二阿羅星山同前星山武靈之訛



문화재청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가야사 실체규명을 위해 중요유적을 발굴하고, 가치가 확인된

유적·유물은 문화재로 지정 추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 창녕 계성고분군(사적 제547호), 장수 동촌리고분군(사적 제552호)의 사적지정과 함안 가야리유적의 사적 지정 예고, 그리고 합천 삼가고분군 등 사적 지정 작업을 추진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 제2018호),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보물 제2019호),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보물 제2020호)을 지정하였고, 그 외 다양한 가야유물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노력

세계유산 등재 사업으로 가야고분군 7개소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록('19.1월)하고,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19.7월, 문화재청)하여 추진

-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말이산, 고성 송학동, 창녕 교동과 송현동, 합천 옥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7개소

향유기반 조성 사업

- 함안 말이산고분군 전시관, 장수 동촌리고분군 전시관 건립 지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